현대불교

제 78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음력 4월 27일 · 불기 2554년 · 주간)





“모두 한 보따리 안에 있다”

현장 스님이 말하는 ‘법정 스님 종교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법정 스님의 <산방한담>을 읽고는 다음날 한달음에 송광사 불일암으로 법정 스님을 만나러 달려갔다.

청년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책을 밤에 썼어요? 낮에 썼어요? 마루에서 썼어요? 방에서 썼어요?”

법정 스님은 당돌한 질문을 던진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차나 마시고 가거라.”

이번에는 법정 스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그래,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군인도 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이 학생에게 말했다.

“무엇이 되겠다기보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거라.”

스님과 학생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할머니 뒷바라지만으로 어렵게 조선대 법학과에 진학했던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법정 스님은 그런 그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광주 베토벤 음악감상실에 맡겨 놓으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스님은 그가 졸업할 때까지 빠짐없이 등록금을 부쳐줬다.

법정 스님은 청년에게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소개하라”고 해서 다른 친구 셋도 졸업 때까지 학비를 도왔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지만 스님을 직접 뵌 적은 없었다. 특히 법정 스님은 그와 친구들에게 도움 받은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그는 법정 스님의 다비식을 모신 후에야 현장 스님에게 사연을 밝혔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포 초당대 문현철 교수.

문 교수는 가톨릭 신자이다. 대학 다닐 때 가톨릭에 입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세를 받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 2주 동안 사경을 헤매고 5개월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문 교수는 퇴원하자마자 송광사 불일암을 찾았다. 홀쭉해진 그에게 법정 스님이 물었다.

“어디 아팠어?”

문 교수가 답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를 치인 차를 붙잡아 주지 않고 영세 받은 날 교통사고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스님처럼 불교를 믿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천주님은 그런 만화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 네가 더욱 성숙해져 더 큰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천주님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나 모두 한보따리 안에 있는 것이니 따로 종교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티베트박물관장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과 청년의 사연을 6월 3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주최해 열린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현장 스님은 주제발표 ‘법정 스님이 바라본 이웃종교의 같음과 다름’에서 “법정 스님의 다비식 날 불일암에 올랐다가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는 중년의 남성을 만났다. 그가 문 교수였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은 불교라는 틀에 매이는 것을 거부했고, 수행자라는 상에 매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출가 수행자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선지식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스님은 “법정 스님은 자신의 말 · 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체험하지 않고 깨닫지 않은 사실은 글로 쓰지 않았다”면서 “법정 스님이 남긴 글과 삶과 죽음의 모습, 종교교류의 흔적들이 스님이 가신 후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구례 화엄사 북한 지원을 위한 통일쌀 모심기 화엄사와 구례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 등으로 구성된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5월 30일 화엄사 인근 논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했다. 이날 6만여㎡에 심어진 벼는 가을에 추수해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공동경작단은 2007년 조직되었으며, 매년 통일쌀을 경작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명 살리자는 한 비구의 외침

문수 스님 소신… 4일 영결식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영결식이 6월 4일 스님이 주석했던 경북 군위 지보사에서 봉행됐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15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추모제 등을 진행한다.

조계종 제10교구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사에서 “문수 스님과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제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 시절인연이 참으로 하수상하니 몸을 맡겨놓은 세 평 공간마저 버려야 했다”면서 “조계종도들은 스님께서 공양 올리신 그 뜻을 헤아려 세상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갈등을 푸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세상의 온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영결사에서 “문수 스님이 사바인연을 버린 것은 항상 근면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수 스님은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5월 31일 오후 3시경 낙동강둑에서 소신(燒身)했다.

영결식에 앞서 지보사는 문수 스님의 유품을 공개했으며, 곱게 접힌 승복 윗도리와 흰 고무신, 파란색 작은 수첩과 필기구, 승려증과 10만원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문수 스님은 1986년 월정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8년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을 지낸 스님은 이후 통도사 · 두방사 · 해인사 · 묘관음사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2006~2009년 청도 대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민추본 “6월은 평화 실현의 달”

창립 10주년 맞아 철책선 걷기 · 사진 공모전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6월을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달’로 정하고 평화통일 순례, 사진공모전을 연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순례는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연화사 · 개운사 신도들과 함께 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평화통일 순례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강화해역 평화통일 올레길 걷기행사를 실시한다. 올레길 15km 중 10km에 해당하는 철책선을 따라 걷는다. 또 걷기행사를 마치고는 김포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평화통일을 발원한다. 6월부터 두 달여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해 10월 전시회를 연다.

민추본은 창립 10주년에 즈음해 이외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를 주제로 법회와 음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돼 보류하고 있다.

민추본 박재산 홍보계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었지만, 남북관계가 급격이 악화되면서 기원법회, 강연회, 음악회 등은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8~10월 중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평화통일기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추본은 5월 31일 발표한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와 평화를 발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추본은 성명에서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은 아무리 사소한 교전이라도 국지전으로,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파국을 맞게 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전쟁의 참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추본은 정부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와 같은 자극적인 조치를 취소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또 “이전에는 위기상황에서도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상황관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든 채널이 단절됐다”고 지적하고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될 사소한 문제가 상호간 오해와 잘못된 신호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위기상황의 수습을 촉구했다.

민추본은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를 전담하는 기구로 “7천만 민족이 바라는 통일조국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00년 6월 8일 창립됐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14 선지식-법산 스님 ▶4 인터뷰-덕현 스님 ▶9 현장-다문화 합창제 ▶16 강의-향봉 스님

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조계종 교육원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이달 중 4차례에 걸쳐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원은 6월 1일 지방승가대학(강원) 중 학인 정원에 미달되는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방의 의견수렴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10일 선학전문대학원 △11일 율장전문대학원 △14일 초기불전전문대학원 △17일 한문불전전문대학원을 주제로 각 오후 2시에 열린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1일 현재 미정이다.

교육원 이석심 교육차장은 “각 전문대학별 세미나에 맞춰 해당 분야 전공자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남북통일 점검 평화재단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남북 대화협력의 가능성 및 통일과정을 점검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 1마당에서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의 교훈'을 주제로 올리히 블럼 할레대학 경제연구소장, 라르 한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예루살렘 연구소장이, 2마당에서는 '예멘과 베트남 통일과정의 교훈'을 주제로 아메드 키비시 사나대학 부총장과 응웬 칸 하노이대 인문사회대학장이 각각 발제한다. (02)851-0581 노덕현 기자

7대 종교 환경지침 책으로 출간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 '환경, 더불어살기 II'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천도교·유교·민족종교 등 7대 종교의 환경실천을 담은 <환경, 더불어살기 II>가 출간됐다.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회장 정연택)는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환경, 더불어살기 II>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생태적 지혜와 환경'을 주제로 편찬된 불교 환경지침서에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생태적 인식과 환경실천'과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의 '불교의 생명살림과 생태적 삶의 실천' 등이 수록돼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책에서 "7대종교와 환경부가 각 종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종교단체 환경지침서를 공동 발간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다. 물질중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세태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의 자연사랑을 통한 조화로운 삶의 추구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5월 31일 불교 등 7대 종교의 환경실천법을 정리해 출간된 <환경, 더불어살기 II>.

정연택 환경정책실천협의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 더불어살기 II>는 각 종교인의 구체적인 생활 속 환경실천 운동을 중심으로 각 종단 환경운동가의 글로 구성했다"면서 "이 책을 통해 각 종단 환경실천운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종교인들이 녹색한국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 스님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오영숙 천주교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위원,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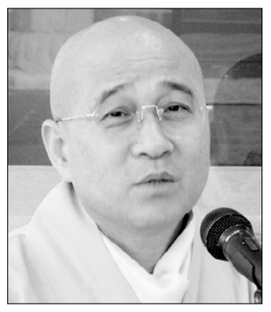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봉은사 물밑협상 진행 중"

총무부장 영담 스님 밝혀… 신도회 '철회' 서명운동

봉축을 즈음해 소강상태에 있던 봉은사 사태가,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당분간 폭로와 비방, 무리한 직영전환 강행은 없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사진)은 6월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봉은사 직영전환 시행 등 무리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물밑 접촉이 진행중인 만큼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과 봉은사 등 복수 관계자도 현재 봉은사 사태 해결을 위한 양 측의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 측 모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밝히기를 꺼려했지만, 중앙종회의 승인을 얻어 직영전환의 명분을 쥔 총무원과 '좌파주지'를 몰아내기 위한 외압에 의한 전환이라며 반발하는 봉은사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봉축 전 봉은사 일요법회 등을 통해 "봉은사 직영전환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부처님오신날 이후 법회에서 종단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총무원을 자극할 언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봉은사 신도들은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를 위한 1인 릴레이 108배 참회기도와 직영사찰 지정 철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여수 토막살인 사건 교계 안팎 충격

조계종 승려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여수 여종업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스님인 것으로 드러나 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5월 29일 유흥주점 여성접대부 살해 피의자로 여수 모 사찰에 거주하던 B스님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B스님이 거주하던 모 사찰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의 여수지역 말사이다. 하지만 B스님은 조계종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B스님은 오래전 종단에서 재적당한 상태"라며 "여수 모사찰에는 주지스님과의 반연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종단을 초월해 승가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조계종에서는 승가 위의와 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스님들의 재교육 등 심성 점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조계종단 재적승려가 아닌 출가자의 종단 소속 사찰 거주는 종법상 어긋나지만 조계종단 내 출가자 수가 부족해 행정지도 외에는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스님이 거주해 지역민의 구설수에 오른 여수 모사찰은 화엄사와 협의해 이미지 쇄신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중앙승가대 중앙도서관 기공식

2011년 2월 중 완공, 김포시민에게도 개방

중앙승가대학 중앙도서관이 기공돼 2011년 1학기 전 완공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학(총장 태원)는 5월 31일 김포학사 도서관 신축 부지 현장에서 중앙도서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중앙승가대의 기존 도서관은 본관에 부속된 시설로 공간적 제약이 많아 학인스님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5월 31일 기공한 중앙승가대 중앙도서관 조감도.

새 도서관은 종비 및 후원금 44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여㎡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시민을 위한 열람실, 자료실, 정기간행물실을, 2·3층에는 대장경 등 불교관련 자료실과 인문사회 자료실, 교수와 학인스님을 위한 열람실 등이 갖춰진다.

또, 2·3 층에는 학인스님들이 인근 강의동에서 도서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4층에는 옥상과 이어지는 옥상정원을 갖춰 학인스님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총장 태원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하는 중앙도서관은 훌륭한 학인 스님을 양성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김포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이타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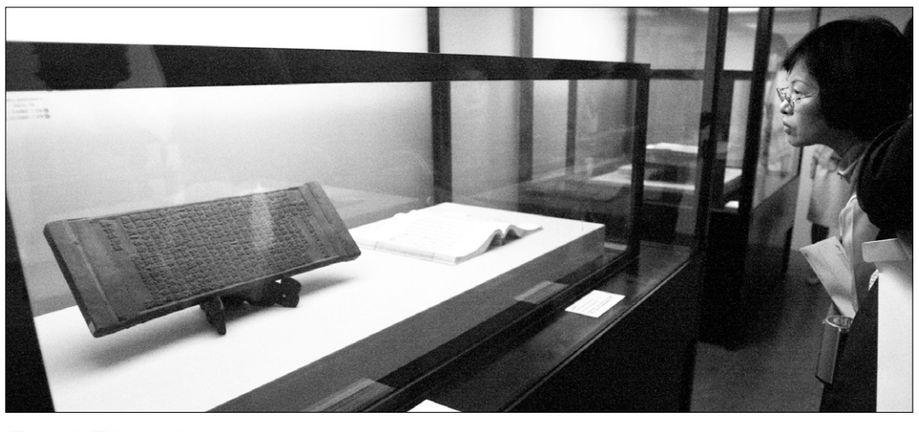
이에 앞서 총장 태원 스님은 식사에서 "도서관은 교수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고, 학인스님에게는 폭넓은 독서를 통해 바른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기대 인수 추진 중

동국대(이사장 정련)가 경기대를 인수를 추진 중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의 경기대 인수가 상당부분 진행 중이다. 최근 경기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PT(설명회)까지 마쳤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밝히기를 꺼려했으나, 인수자금은 1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가 경기대를 인수하면 연 신입생 수가 6100여 명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대 인수에는 동국대와 신흥기업인 CN그룹, 교수·대기업 대표·로텀 공동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개인들이 인수의 향서를 제출해 놓고 열띤 인수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는 임시이사회 내 법인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6·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대는 지난해 인수 의향을 밝힌 을지재단, 인제학원 등과 협상했으나 여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있다. 조동섭 기자



국제기록문화전시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6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개최했다. 6일 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47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이 전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원판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원적 14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창종주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원적 14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붕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3년 6월

다음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6월 20일 (음 5. 9)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호불사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65-2
◆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 (02)998-8161~2 / 전송 (02)998-8384
2. 호불사 : 전화 (032)833-8175 / 전송 (032)833-8888
3. 각교구 종무원
홈페이지 http://ilbung.org

◆ 증 명 : 붕해, 무찰, 금봉
◆ 고 문 : 청송, 원각, 송은, 수암, 혜천, 명종, 법운, 무공, 도기
◆ 봉행위원장 : 화엄
◆ 집행위원장 : 경원
◆ 봉행부위원장 : 삼주
◆ 집행부위원장 : 서병열
◆ 지 도 위 원 : 일명, 경담, 자명, 혜광, 혜원
◆ 추진위원장 : 법해
◆ 추진부위원장 : 광명심
◆ 기획위원장 : 용암
◆ 지도위원장 : 도안
◆ 진행위원장 : 석성
◆ 경호위원장 : 정철
◆ 각교구 동원위원장 : 보해, 동청, 영우, 광은, 승원, 해동, 고봉, 석성, 경운, 지운, 혜성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용운), 의전분과(지언), 재무분과(보월), 섭외분과(정지현)
봉사분과(해동), 홍보분과(김지현)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문수 스님은 탐욕 · 거짓을 꾸짖었다

조계종 총무원 · 불교연대 등 애도문 발표… 분향소 조문행렬 이어져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시민과 정치인의 조문, 각 단체의 추모사 발표가 줄이었다.

서울 조계사 분향소에는 6월 1일부터 스님의 다비가 봉행된 4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 등 불교계 인사,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명숙 前 국무총리 등 정치인, 배안용 서울교회 목사 등 이웃종교인과 시민들이 다녀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일 오후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분향소를 찾았다.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에게 "문수 스님이 서원을 세우고 공양한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도 분향소를 조문하고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에 조의금을 전달했다.

중앙승가대 20여 학인 스님도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큰 뜻을 기렸다.

이날 오후 심상정 前 진보신당 대표가 분향소를 찾은데 이어 저녁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명숙 前 국무총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조문했다.

2일 오전에는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 유시민 경지도지사 후보, 손학규 前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배안용 서울교회 목사 등 이웃종교인과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다.

이외에도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등이 문수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조계사를 다녀갔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에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종무원조합, 조계종전국선원수좌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대중결사 등 불교계 안팎의 단체들의 애도문 발표가 줄이었다.



문수 스님의 다비식이 6월 4일 은해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 · 현산 · 지환, 이하 선원수좌회)는 논평에서 "문수 스님은 지보사에서 무문관 생활로 치열하게 참선 정진한 올곧은 납자였다"며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이 훌륭한 수행자를 소신공양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애도문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온 생명을 구하고자 한 지극히 불교적인 생명살림의 발로이다. 생명의 강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탐욕과 거짓을 꾸짖는 준엄한 질책이자 그에 맞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주는 자비롭고도 고요한 항거"라고 애도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대표 퇴휴)는 애도 논평문을 통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바쳐 뭇생명을 살리려한 문수선사의 보살행은 이 시대에 내리는 죽비"라며 "문수선사의 따끔한 질책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선사의 숭고한 뜻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문수 스님이 수학했던 중앙승가대의 총동문회(회장 원정)는 입장서에서 "문수 스님의 숭고한 뜻은 이 시대상의 아픔을 중생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엄준한 가르침"이라며 "4대강 사업 중지 · 폐기와 부정부패 척결, 서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문수 스님의 원력이 실현돼 예토가 정토되는 날까지 동문들은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소신공양은 신명(身命)을 버린다는 뜻으로, 위법망구의 궁극적 행위이다. 소신공양은 깨달은 구도자가 자신의 온몸을 태워 자신은 절대 삼매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 빛으로 중생을 널리 구제함을 의미한다.

현대에서는 폭정에 항거해 1963년 베트남의 틱 누 딴 꽝(Thich Nu Quang) 스님이 큰길에서 소신공양했고, 한국에서는 태고종 충담 스님이 1998년 6월 27일 가평 감로사에서 조국통일 등을 염원하며 소신공양했다.

■ 문수 스님의 마지막 말

"4대강 사업 중지하고 서민 위해 최선 다하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후 공개된 스님의 유서는 낙동강둑에서 소신공양을 하면서 남겨진 유품인 수첩과 지보사 스님의 처소 방바닥, 입고 있던 승복 윗도리 세 곳에 남겨져 있었다.

스님은 수첩의 유서에서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文殊(문수)"라고 적었다. 다음 장에는 도반 스님들에게 후일을 기약하자는 메시지를 남겼다. 스님의 방바닥에 남겨진 유서와 승복 윗도리에 남겨진 유서의 내용도 수첩의 것과 동일했다.

스님이 같은 내용의 글을 세 곳에 남긴 것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이 되거나 곡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수 스님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함에 따라, 불교계의 4대강생명살림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이 6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으로 큰 죽비를 때렸다.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고 진정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 큰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 그 예이다.

조동섭 기자

문수 스님 평소 소신공양 의지 밝혀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주장하며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며 평소 소신공양의 의지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은 문수 스님에 대해 "수좌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평소 일간지를 탐독하며 세간의 일을 걱정했다"고 소회했다.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 전날에는 지보사 총무인 견월 스님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말했다. 하루에 필요한 말 몇 마디 외에는 하지 않던 스님이 이날은 좀 더 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원범 스님은 "5월 말에 겨울에 입는 솜옷 누비를 입고 나갔다"며 "솜옷 누비에 휘발류를 흠뻑 적셔 완전한 다비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5월 31일,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자 스님의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앙승가대에서 스님을 가르쳤던 유승무 교수는 "이 시대 진정한 운수납자다"라고 말했다. 1998년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문수 스님을 기억하는 유승무 교수는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문수 스님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고 회고했다.

유 교수는 문수 스님을 '수좌형 스님' '야생적인 사람' '원칙론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유 교수는 "거칠고 야생적인 모습을 보였던 스님은 교학보다는 수좌형 스님에 가까웠다. 심지가 깊고 원칙을 중시 여겨, 옳다고 판단됐을 때는 절대 타협하는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학생시절 말없이 조용하게 지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불서를 읽거나 수행을 했다. 소신공양할 때와 같이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유승무 교수는 스님과 축구 경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도 추억했다.

15년 도반인 견월 스님은 "문수 스님은 의리 있고 욕심 없이 공부를 해왔다. 정이 많았던 스님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할 정도의 대단한 스님"이라고 기억했다.

이상언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교구본사장 축소"

불교연대 등 강한 반발

문수 스님의 장례가 범불교계장이 아닌 교구본사장으로 봉행됨에 따라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와 중앙승가대 동문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교연대는 6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례 절차를 불자들의 뜻과 달리 일방적으로 축소해 우리 사회의 참회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 스님의 유지를 퇴색케 한 종단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무원 관련 소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총무원측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앞선 2일, 문수 스님과 도반인 중앙승가대 제17기 동문스님들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장으로 다비식이 봉행돼 스님의 뜻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묵살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교구장으로 축소한 것이 스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총무원을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봉행 일붕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4주기 추모대제

귀의 삼보 하옵고,
고당의 존체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불사 원만 성취 되심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 드립니다.

불교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뜻을 지니고 어진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 섭심으로 자비의 등불을 밝혀 깨달음의 길에 이루게 하는 종교이며 그 깨달음의 길로 전세계 종도들을 이끌어 주신 일붕법왕 존자…

비록 육신은 아니 계셔도 법신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일붕법왕 존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열반의 그날까지 전 세계 중생들을 구제 하시고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전법 하시다 열번에 드신 일붕법왕 존자님의 원적 14주기를 맞아 숭고한 유업을 기르고 그 뜻을 추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모 법회를 봉행 하옵니다.

본 행사가 원만 회향 될 수 있도록 덕과 원력이 충만하신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 일붕 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4주기 추모 대제 봉행 위원회 ■

- 증 명 : 혜륭 대종사, 정각 대종사, 지공 대종사
- 산중대표 : 일붕사 주지 혜운스님
- 봉행위원장 :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각스님
- 봉행부위원장 : 공심스님 . 수원스님 . 법성스님 . 법상스님 . 혜도스님 . 혜성스님 . 유심스님 . 자은스님. 혜문스님 . 운송스님 . 무심스님
- 준비위원장 : 무공스님
- 준비부위원장 : 보경스님
- 집행위원장 : 혜선스님
- 추진위원장 : 담화 이존영 거사
- 동원위원장 : 보리스님
- 총무분과 위원 : 혜광스님 . 도성스님 . 혜정스님 . 묘원행 . 김명희
- 재무분과 위원 : 도현스님 . 도일스님 . 도진스님
- 홍보분과 위원 : 혜경스님 . 혜원스님 . 지연스님
- 의전분과 위원 : 지산스님 . 도우스님 . 묘정스님
- 문중대표 : 동봉 정대룡 법왕청 최고위원(흥천사 주지)

[무순]
법진 신승도 법왕불교대학 학장 . 혜성 이혜성 성주금산사 주지, 청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해광 문동춘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정철 정홍문 (사)세계불교연맹 이사장, 능인 이상룡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송원진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박강수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광 김용익 대한불교 달마선종 종정, 일웅 김철우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해심 문창운 호국사주지, 법천 유일수 불교일보 회장, 현공 이동남 부천정각사 주지, 연화 안명숙 충남불교조계종 계룡사 주지, 금화 최영희 무진암 주지, 불두화 최두례 부산 수월정사 주지, 법석 김석범 달마정사 주지, 법상 박상식 법화사 주지, 법성 김희동 보담사 주지, 청산 이재관 충남불교 총무부원장, 남은 이창근 총화종교육원장, 용주 권용원 용주선원 원장, 덕암 오세정 용인만국사 주지, 지선 오명환 대구 성지선원장, 혜명 김상필 성도사 주지

- 봉행의원 : [무순] 도법 . 도선 . 도안 . 도일 . 도해 . 령산 . 법광 . 법정 . 법선 . 법수 . 법우. 법은 . 법진 . 보광 .보명 . 성경 . 성범 . 성수 . 승조 . 운학 . 원경 . 자광 . 정암 . 지현 . 지흘 . 진산 . 청타 . 해명 . 현우. 혜법 . 혜운 . 혜원 . 홍련 . 지성 . 혜화 . 원명 . 일현 . 일선 . 혜인 . 무무 . 보경 . 보리심 . 법화 . 보현 .도연 . 공덕문 . 일광 . 연화행 . 대원 . 성덕 . 보현 . 연화심 . 일심 . 지선 . 진여 . 연화 . 선덕 . 보련화 . 보광원 . 목련화 . 청명 . 보연암 . 정행 . 보명 . 천영숙 . 수타원 . 도휘 . 청운행 . 법륜행 . 정다문 . 진원 . 백연심 . 정도화 . 도리심 . 보타행 . 청명화 . 보타 . 보리심 . 혜명 . 법연 . 지원 . 일월 . 법성화 . 보향 . 일현 . 법성화 . 향원 . 반야화 . 대덕화 . 보연 . 보현 . 법연실 . 봉선 . 혜지 . 소보 . 경란 . 혜원 . 정법 . 만오 . 덕산 . 법룡 . 명조 . 해룡 . 혜성 . 혜강 . 혜인 . 혜심 . 원봉 . 해광 . 록천 . 시명 . 정인 . 성운 . 도해 . 대도 . 지일 . 향덕 . 법공 . 남천 . 태원 . 도원 . 운선 . 향운 . 법천 . 도철 . 도진님

■ 주 최 : 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 주 관 : 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일붕 법왕종
■ 후 원 : 일붕사 . 국제불교문화원 . BTN불교방송 . 경기매일신문 . 현대신문 . 일붕문도회 . 법왕청신문 . 불자연예인 협회 . 일붕신문 . (사)국제법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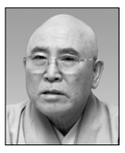
다 음

▶ 일 시 : 불기 2554년 6월 20일 (음력) 5월 9일 10시부터
1부 . 다례식 / 2부 . 추모법회 / 3부 . 추모공연

▶ 장 소 : 경남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175번지 일붕사

▶ 연락처 : 봉행위원회 1644-3668 / 법왕청 02)3217-3217 / 일붕사 055)572-7777

일 주 문



관음사 종하 스님 장학금 전달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은 5월 26일 인천 서인천고를 방문해 학생 10여 명에게 총 1,6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6월 26~27 실상사 일대에서 실상사 작은학교 1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한다. (063)636-3369



동백연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6월 10일 선운사 경내에서 제34회 동백연청 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봉은사 임성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8일 경내에서 영암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및 다례제,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한다. (02)511-6070



조계사 설악산 봉정암 특별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6월 18일 경산 팔공산 갓바위 약사기도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도선사 자비도량참법 백일기도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6월 17일 도선사 경내에서 자비도량참법 백일 정진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회장 세운 스님은 6월 25일 단양 천태종 구인사에서 제4회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수련법회를 봉행한다.



여름불교학교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레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6월 20일 서울 구룡사에서 제45회 여름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달마 무료 보시전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장 원묵 스님은 6월 18~20일 포항 경북일보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청소년 불우 이웃돕기 '달마 무료 보시전'을 개최한다.



불교교육연합회 포럼 개최

불교교육연합회 오영교 회장(동국대 총장)은 6월 11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불교종립학교와 종교개혁'을 주제로 불교포럼을 개최했다.

"조계종 브랜드 알리는데 주력 할 것"

개원 1주년 맞은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

한국문화의 세계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기치로 개원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전통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사진)은 6월 8일 서울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후 1년이 문화원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조계종 브랜드를 살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혜오 스님은 2009년 11월 본부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문화원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연수를 희망하는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도 갖췄다. 또, 외주였던 문화원 식당을 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웰빙식으로 각광 받는 사찰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기업체 등 성인 연수시에 가장 호응이 좋다. 문화원은 불교적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원에는 지금까지 종립학교 학생 연수 외에도 웅진그룹, 금호생명, 근화제약 등 50여 업체가 다녀갔다. 문화원은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불교계 외의 일반기업체 연수 비중을 늘려갈 예정이다.

"연수공간이 필요해 문화원을 찾았다가 참선, 다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라는 기업체의 제의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초기에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이 미비해 시설대관 수준에 머물렀다. 1년 여간 연수를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 격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이제는 외부단체행사시 대관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의 위탁교육까지 의뢰받고 있다.

이는 혜오 스님이 좌선실, 다도실 등 다른 연수시설과 차별된 문화원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계발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이 7월 10일부터 상설 운영되는 참선 프로그램과 전통사찰 김치만들기이다. 스님은 "참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염불, 주력 등 다양한 수행 · 수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문화원에 머물다 가는 이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문화 정서를 향유하고 만끽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참선

전통불교문화원, 참선 입문 프로그램 상설 운영

일반인을 위한 1주일 과정의 참선 입문 프로그램이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상설 운영된다.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본부장 혜오)은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 1주년을 맞아 조계종단 최초로 6박 7일 과정의 참선 입문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토요일 오후 입재해 금요일 오전 회향하는 참선 입문프로그램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이 번갈아 증명법사를 맡아 법문과 화두점검을 해준다.

특강 강사로는 前 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서강대 박영재 · 서명원 교수, 변희욱 박사 등이 참여한다. 행사가이드로는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동국대 서재영 박사가 나선다.

전통불교문화원 박희승 총괄부장은 "참선 프로그램은 불교 기본교리 습득을 통한 발심 유도-> 화두 참구법 지도-> 행선과 운력을 포함한 선실수 순으로 진행돼 초심자도 누구나 쉽게 참선을 배울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참선 프로그램에는 종교를 초월해 참선을 알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비는 23만원. 참가신청은 전통불교문화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불교문화원은 1박2일 과정의 '선재 스님의 전통사찰 김치만들기' 과정을 개설했다.

7월 10~11일 첫 실시되는 김치만들기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은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회비는 25만원. 직접 담근 김치는 집으로 가져간다. (041)841-5050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문화원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인근 태화산 자락 3만3000㎡(1만평)에 지상 3층 규모로 2009년 6월 개원됐다. 조계종 내 각종 연수교육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전통불교문화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교육시설과 선방, 다도실, 지대방 등을 갖추고 있다.

법사전법연수교육

일붕선교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는 6월 3~4일 인천 청량산 호불사에서 전법연수교육을 봉행했다.

행사는 사찰 운영과 불교와 종단 포교를 위해 청호 법사 등 40여 법사를 대상으로 교육원장 법해 스님이 주관해 진행했다.

고시위원장 원각 스님, 부산종무원장 삼주 스님,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특강을 통해 법사들에게 바른 전법을 당부했다.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화엄 스님은 회향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신도들에게 불심을 심어가는 법사님이 이 시대의 일붕선교종을 바로 지켜내는 참다운 종도"라고 말했다.

종회의장 경원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열심히 포교하는 여러분이 더욱 발심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했다. (02)998-8161

조동섭 기자

종교만큼 쉬운 것 없다

수불 스님, 불교 CEO 조찬법회서 법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왼쪽서 두번째)와 동국대 불교대학 원장 계환 스님(왼쪽서 세번째).

"종교를 믿는 목적은 어리석음[무명]을 타파하고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계환)이 6월 8일 오전 7시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불교 CEO 조찬법회에서 이 같이 법문했다.

스님은 주제법문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에서 "종교는 기록이 남겨져 있느냐, 이치에 부합되느냐, 교리가 사실로 증명됐느냐의 세가지가 부합돼야 한다. 이 세가지가 부합하지 못하면 유사종교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교가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종교만큼 쉬운 것은 없다. 일반적인 윤리에서는 선이 진리이지만 종교윤리는 선도 악도 진리인 것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사람이 '눈이 본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눈이 보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는 눈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눈이 본다. 보지 않는다의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아는 삶의 여유로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불 스님은 법문 후 동국대 불교대학에 1억원의 수불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그동안 동국대 학인 스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을 발원한 스님의 뜻에 맞게 학생들을 위해 △영어교육 △해외 템플스테이 견학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전국 어린이 연꽃문화제



서울 · 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이 불교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다.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서울 · 경기지역 제1회 어린이 연꽃문화제가 6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축제는 부처님 나라, 부처님 마음, 부모님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 글짓기 대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예선, 전통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월 13일 광주지역을 끝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어린이 연꽃문화제는 마무리 됐다.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대회 본상 수상자는 6월 16일에 발표된다.

이상언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6. 26(토) 오후 1시부터 ~ 6. 27(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옥천범음대 특강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산재가 행하여짐에 있어서 도량장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량장엄' '가사조성법' '법고무' 과정을 개설하여 특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법고무' 과정은 소정의 검증을 통하여 학교장 명의로 법고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교 수	기 간	강의요일	시 간
도량장엄	이경암 스님 (준보유자)	2010년 7월 1일 ~ 8월 5일 6주	매주 목요일	오후1시~4시
가사조성법	현 종 스님 (장벽응스님 제자)	2010년 6월 29일 ~ 8월 3일 6주	매주 화요일	오후1시~4시
법 고 무	이기봉 스님 (준보유자)	2010년 6월 30일 ~ 8월 4일 6주	매주 수요일	오후1시~4시

▶ 수강료 : 400,000(사십만원)정
▶ 재료비 : 실습 재료비 별도
▶ 문 의 : 02)392-3234

※ 〈주의〉 각 과목별 개강일과 종강일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유럽 중심주의 관점 탈피해야”

강철구 교수 ‘세계사 무비판 수용 폐해’ 지적



“세계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적용이 IMF, 지속적 한국의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 세계경제위기, 민족주의에 대한 오해로 지역갈등 악화 등을 초래한다.” 강철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사진)는 “우리는 아시아 세계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고스란히 배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역사 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과학, 경제학 등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 세계사를 멍청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구 교수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사의 극복’을 주제로 6월 1일 참여불교리더스클럽 포럼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럽중심주의는 유럽문명이 비유럽 문명에 비해 독특하고 우월하다는 가치관이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정당화를 위한 왜곡, 축소, 은폐된 세계사가 쓰여졌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불균형한 세계사가 비서양 세계의 인식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유럽중심주의적 세계사의 바탕이 되는 생각의 틀이나 이론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구 교수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서양중심적 학문접근과 적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그 예로 “이슬람 문화를 비윤리적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로 인식하는 것, 신자유주의를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강의 노래를 들어라’ 4대강 공사 반대를 촉구하는 무료콘서트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5월 29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됐다. ‘강의 노래를 들어라’는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는 1554명의 시민이 후원했다. 1만여 시민이 모인 이날 콘서트에서는 6·2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상언 기자

자비 구현으로 평화 증진

IABU·CBT ‘지구 회복:불교적 관점’ 국제불교대회서 방콕 선언

국제불교대학협회(IABU)와 공동불교성전(CBT)는 5월 23~25일 태국 방콕과 아유타야 일원에서 ‘지구 회복: 불교적 관점’을 주제로 제7차 국제불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세계 83개국 1700여 대표단과 태국 불자 1300여 명 등 3000여 불교지도자와 학자들이 참가했다.

한국 대표로는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이 참가해 ‘선수행에 의한 정신적 복지를 통한 지구적 회복’을 주제발표 했다.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불교 수행 전통이 인간 탐욕과 증오 및 무지에서 비롯된 세계적 위기극복과 인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진월 스님은 대승불교권을 대표한 공동불교성전 편찬위원으로 연찬에 참여했다.

공동불교성전위원회에서는 2011년 공동불교성전 시안을 마련하고 발간을 준비하기로 논의했다.

공동불교성전은 빨리어 중심의 테라바다와 범어, 한문 중심의 마야하나 및 티베트어 중심의 바즈라야나 가운데 주제별 핵심 내용을 선별·취합해 대중용으로 작성하는 작업으로 2005년부터 기획됐다.

제7차 국제불교대회는 25일 유엔컨벤션센터에서 학술회의 결과를 종합해 “불교의 지혜·자비 구현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방콕선언을 채택·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유엔 베삭데이 기념축제는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中 육조사와 연계 인재양성 나서

폐교 불교대학으로… 혜능국제불교大 개교



5월 31일 혜능국제불교대학 개교식에서 참가귀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 육조선원(방장 연화)은 5월 31일 원주시 귀래면 소재 舊 용암초교에서 혜능국제불교대학 개교식을 개최했다.

혜능국제불교대학의 현판은 중국 육조사 방장 석대원 스님의 글씨를 조각해 의미를 더했다.

폐교를 임대해 개교한 혜능국제불교대학은 2년 과정으로 신심 있는 사부대중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단, 수료와 자격증 교부에는 철저한 시험·심의를 거쳐 양질의 불교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033)766-2556 **조동섭 기자**

“이슬람은 평화 추구”

한국종교인평화회의·한국이슬람교 세미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최근덕)와 한국이슬람교는 6월 2일 ‘이슬람, 다가서다’를 주제로 종교간 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반성하고,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 장이었다.

첫 주제는 ‘무슬림에 다가가기’라는 내용으로 이주화 한국이슬람교 부이맘, 안정국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각각 ‘이슬람’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이주 무슬림 2세’를 발표했다.

이주화 부이맘은 “한국은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에 의해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화 부이맘은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평화를 추구하다’ ‘복종하다’ ‘귀의하다’는 뜻이며, 무슬림들의 인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깃들길 기원합니다’는 축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정국 교수는 한국사회 이주무슬림의 현황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9년 10월) 통계자료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 116만 명 중 무슬림은 약 8만여 명으로 7% 정도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20~30년 내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코슬림이 한국에 이슬람의 사상적 기반 논리를 제공하면서 ‘한국 이슬람’을 정립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여 년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권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조주 스님은 이슬람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배려와 관용, 포용성을 체험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슬림의 타종교에 대한 무지함도 목격했다.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토론에서 “사회정책과 종교문화적 접근방안을 동시에 시행해 앞으로 일어날 사회문제를 해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100자 뉴스

감로사 충담 스님 열반 12주년 추모영산재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15일 오전 11시 가평 감로사에서 충담 스님(태고종 승정) 열반 제12주년 추모재와 학술발표회를 봉행한다. 추모재에 앞서 열리는 학술발표회에서는 최성렬 조선대 교수가 주제논문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과 불자의 자세’를 발표한다.

주지 지성 스님은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소신공양으로 화중생연을 피운 충담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회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부대중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담 스님은 분단조국 통일, 생로병사 중생제도, 불교계 화합흥륭 등 3대 원력을 세우고 1998년 6월 27일 감로사 미륵부처님 전에서 소신공양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숭림사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19~20일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6월 19~20일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숭림사 인근 송천마을에서 개최되는 제2회 장수마을축제인 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해 사찰문화체험(참선, 바루공양, 다도) 블루베리수확체험 및 음료시음, 블루베리 케익만들기, 문화예술공연, 전통놀이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일반인 3만원, 초등학생 1만원, 중고생 2만원이다. (063)862-6396 **조동섭 기자**

공주시 ‘마곡사 토요무대’ 10월까지 상설운영

공주시는 작은 음악회인 ‘마곡사 토요무대’를 6월 5일~10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천년고찰 마곡사 관광지에서 상설 운영키로 했다.

올해는 기존 무대에 지붕과 조명시설 등을 보강 설치해 관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또, 통기타, 퓨전밴드,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천년고찰 마곡사만이 갖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화를 이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묵 공주시 관광축제팀장은 “올해는 ‘대충청방문의 해’이면서, 2010 세계대백제전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해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을 이용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요무대가 마곡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쁜 추억을 남기는 계기가 되도록 공연기획 등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선진 스님 ‘하루헌과 친구들’ 전시회 개막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이 6월 1~6일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지역 미술인들과 함께 제7회 하루헌과 친구들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터넷 카페 하루헌을 통해 교류하는 지역 미술작가 33인이 참가해 원효 스님의 사상인 ‘화쟁’을 주제로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선진 스님은 “우리 사회의 이원론적 갈등, 대립과 혼돈의 문제를 예술적 표현으로 끌어내 소통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도로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인권위 “MB정부는 국민 두려워하라”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는 ‘6·2 지방선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드러났다.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한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총리 등 내각과 청와대 수석 총사퇴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세종시의 원안 시행 △금강산 방문 속개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국내 최대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완공

여가 · 상담 · 치료 · 연구… 5월 29일 개관 기념식



(왼쪽 다섯 번째부터)서울시 복지재단 이성규 대표, 노재동 은평구청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나진구 서울시 제1부시장, 민주당 이미경 의원,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이 인덕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개관 기념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개관기념식에는 5000여 축하객과 인덕원 산하 시설 300여 직원,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완공 됐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5월 29일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개관 기념식을 열고 21세기형 노인복지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인덕원은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북한산 삼천사 주지로 부임한 1970년대, 삼천사 주변 마을에 모여 어렵게 생활하던 철거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보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렇게 지난 1994년 사단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35개 산하 단체를 두고 줄곧 노인복지사업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인덕원이 변화를 실감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된 2008년 7월부터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이 부담 경감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20만 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집과 가까운 지역에 입소하길 바랐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인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그간 운영해오던 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허물고 2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9년 7월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하게 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약 6,600㎡(약 2,000여 평)에 300여 병상을 마련했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덕데이케어센터, 인덕치매상담센터, 인덕노인복지연구소 등의 시설을 마련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의료, 재활, 작업 치료, 문화, 여가, 종교생활 등이 한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에 필요한 총체적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은 태양열 시스템 도입으로 인체에 무해한 냉 · 난방 에너지를 공급해 환경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의 입소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받으신 분으로 하고 있다. 이중 일반 어르신의 경우 본인부담금 20%(국가보조 80%) ·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10%(국가보조 9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국가보조 100%)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에 입소한 어르신은 모두 식대, 간식, 이미용 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덕데이케어센터 실시로 어르신의 주 · 야간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 내 인덕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를 하지 못하는 160분의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신종플루, 천안함 사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미뤄진 개관 기념식이 1년 뒤인 지난 5월 29일 개최됐다. 조금 늦은 개관 기념식이었지만 지역 어르신과 교계, 정계 등에서 온 5000여 인사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거행된 기념식은 1 ·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렸고, 2부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사장 성운 스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이성규 대표, 노재동 은평구청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인덕원이 불교 복지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최대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타운 개관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국내 최대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개관하게 됐다. 사회복지를 수행 방편 삼아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02)3156-7500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라빈이에게 예쁜 귀를…

생명나눔 6월 환자, 민라빈군



선천성 소이증을 앓고 있는 민라빈군이 엄마와 함께 웃고 있다. 라빈이는 몸이 아프지만 식당일을 하는 엄마를 위해 동생과 함께 집안청소를 해놓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안마도 빼먹지 않는다고 한다.

14살 라빈이의 꿈은 멋진 수의사가 되는 것. 하지만 수의사가 되기 전에 귀를 갖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소원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지원 환자에 선천성 소이증을 앓고 있는 민라빈(남 · 14세)군이 선정됐다.

소이증은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귓불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 기형으로 태아가 자라면서 귀의 생성점 부위에 원인모를 이상이 생겨 귀가 형성되지 않고, 귓구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자신의 갈비뼈 연골로 귀 모양을 만들어 9~10세경에 이식해주는 것이 좋다.

선천성 소이증이 있는 라빈이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 남들과 다르게 생긴 귀 모양 때문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심지어 어른들조차 신기한 듯 쳐다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것이 버릇이 됐다고 한다. 자신감 없는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그저 안쓰럽다고 한다.

라빈이 엄마는 라빈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콜 중독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혼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월급은 부채를 갚고 월세를 내기 바빠 아들의 치료비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수술을 미루다가는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 수술을 결정했다. 애타는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라빈이는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라빈이가 자신감을 되찾고, 예쁜 귀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희망을 더하자"며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10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2010 ᄒᆞᆫᄃᆞ솜 병원음악회'를 개최한다. 'ᄒᆞᆫᄃᆞ솜'은 '큰 사랑'이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다. 음악회는 플룻 연주와 수화공연, 가수 김세화, 송봉주씨 등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박선주 기자

YBC 참가자 모집

대불련

부처님의 땅 경주로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달려간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 이하 대불련)가 8월 12~15일 경주일대에서 'Young Buddhist Camp(YBC)'를 개최한다.

YBC 참가비는 12만원이며, 10학번 대학생과 6월 사전 접수를 하는 대학생에게 할인 특전이 있다.

한편 대불련은 YBC의 무대를 주도할 KBUF 문화부(공연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02)732-0239 박선주 기자

"한 · 일 젊은 세대를 위한 자리"

나눔의 집, 2010 피스로드 개최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오는 8월 5~13일 역사캠프 '피스로드(Peace Load)'를 개최한다.

피스로드는 2002년부터 매년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학생 및 일반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배우고 생각하는 자리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스로드는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양국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을 답사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 노동자 등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피스로드 참여자들은 8월 5~8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세워진 '여성의 정쟁과 평화자료관'과 조선인이 강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지하 군사시설이었던 '마츠시로 대본영 쵤거지' 등을 방문한다.

8~13일 한국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불교계가 세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의 피해 증언을 듣는다. 또 위안부 역사관 견학과 아시아의 역사평화와 교육 연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이 밖에도 피스로드에서는 △전 일본군 병사의 증언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강제 노동자의 이야기 △할머니들의 복지와 인권 회복 강연△테마 토론 △세계 동시 수요시위 참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눔의 집 박재홍 간사는 "피스로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한국과 일본에 살고있는 젊은 세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31)768-0064 박선주 기자

건강한 가정 교육생 모집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출산률 저하, 이혼, 가족해체 등 사회의 부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 · 확산하기 위해 6월 28일~8월 10일 상담 전문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상담윤리 △여성학 △상담학 △가족심리 치료 통합 접근 △다문화 복지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상담실습 등으로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은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상담원 및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총 20회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이 수여된다.

이번 교육은 가정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여성들의 일 ·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인 교육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고 수강료는 9만원이다. 02)738-5586 박선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일시 : 매주 월요일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횡사 악사요...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 부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청소년 위한 종교문화 교육 마련해야

한국종교교육학회 '대화방법과 종교교육' 춘계학술대회서 이정구 교수 발표

불교의 불상이나 기독교의 예수상은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로 지향해 갈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를 대표하는 조형물들이 갖는 원형의 시원(始原)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종교의 조형물은 그 원형(原形)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이들은 자신의 목적성취를 위해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정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5월 28일 성공회대에서 '대화방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 대회에서 "3~5세기에 나타난 불상과 예수상의 형태 모두 그 기원과 이미지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 어긋난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하며 "모든 종교기관이 협력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교수는 '3~5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조상(彫像)과 불상 이미지'의 주제발표에서 예수의 이미지가 최초의 조각으로 나타난 3~5세기를 기준으로 삼아 동시대에 제작된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간다라 불상을 비교하며 종교간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했다.



프사마티아에서 발견된 4C예수 대리석 부조(왼쪽).
하다에서 나온 4C 불상(오른쪽).
이정구 성공회대 교수(가운데).

이 교수는 "헬레니즘 조각은 플라톤이 지향했던 이집트의 견고하며 이상적인 신체비례를 원형으로 삼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실재론에 따른 볼륨이 조화된 예술이 헬레니즘 조각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즉, 고대 그리스는 비례, 균형과 대칭을 이상적인 미의 기초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불교미술 양식인 간다라 미술도 헬레니즘 문화가 전해지면서 탄생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인도북부의 간다라 지방(서파키스탄)에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돼 형성됐던 것. 인도에 전해진 헬레니즘 문화는 독특한 불교양식으로 발전해 불교적 주제를 그리스풍으로 표현하는 '간다라 미술'이 됐다. 간다라 미술은 물결모양의 장발, 오똑한 콧날, 인간적인 얼굴 생김새, 깊이 파인 옷 주름 등 그리스풍의 조각기법을 불상 조각에 도입했다.

이 교수는 "헬레니즘 문명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1~3세기이며 간다라 미술은 기원 후 2~5세기이므로 시대적 큰 차이가 난다"며 "후기 로마미술과 초기 기독교 미술, 그리고 불교미술이 지닌 헬레니즘적인 양식상의 유사점이 시공의 차이를 넘어 공존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정구 교수는 이스탄불 근처 프사마티아(Psamatia)에서 발견된 4세기 경 작품인 예수의 대리석 부조와 같은 시기 하다(Hadda)에서 나온 불상도 비교했다. 이 교수는 "둘 다 젊은 여성적인 모습에 곱슬거리는 머릿결, 의상의 유사성은 양자가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체계에 있어 유사한 철학적 개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간다라에서 불상을 제작한 지방의 로마 조각가들은 동양의 교사로서 고전시대의 웅변가 유형으로, 유라시아의 미술가들에게는 고전 시대의 아폴론 형태가 불상의 모델로 자연스럽게 채택됐으며, 예수를 긴 머리의 젊은 청년으로 묘사했던 초기 기독교 미술도 아폴론 상에서 연유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불교와 기독교는 두 형태의 기원과 그 이미지가 유사함에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양상은 상반된 모습을 띈다.

이정구 교수는 "두 종교는 같은 종교 안에서 조차 그치지 않는 교리와 파벌싸움, 이웃종교와의 반목과 전쟁, 교리까지 변질시켜가면서 정치권력과 결탁해오고 있다"며 "불교와 개신교 양대 종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호 검열과 격려를 통해 종교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종교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각 종교에 나타난 대화와 교육방법에 대해 토론을 나눈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박현도 서강대) △대화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교육의 특성(고시용 원광대) △3~5세기 그리스도 조상과 불상 이미지(이정구 성공회대) △통일사상으로 본 대화방법의 이해(조광봉 청심대학원대학) △대화방법으로 본 붓다의 상담관(황수경 동국대) 등 종교에서의 대화방법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스스로 규정한 선의 종지에 자승자박

불교문화연구원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 봉축 세미나

간화선을 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학적 체계를 부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5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봉축세미나를 열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각 스님은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현각 스님은 "우리나라에서의 선수행은 독특하다. 옛날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준비사항과 점검사항과 과정에 대하여 거의 무시하고 있다. 출가를 어떤 엘리트의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루속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깨침에 대한 망상에 잡히게 하는 점도 우려했다. 스님은 "막연하게 깨치고 나면 무슨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인 냥 신비스럽게 간주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의 근본적 배경을 "경전을 무시하는 전통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의 송대 간화선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우만 보아도 경전은 전혀 무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전을 무시하는 시작은 곧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경전을 모르다보니 불립문자라는 말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님은 "스스로 규정해 놓은 선의 종지에 대해 스스로가 얽매이는 자승자박을 초래한 결과다. 이런 점에서 간화선의 수행은 보리달마의 자교오종(藉敎悟宗)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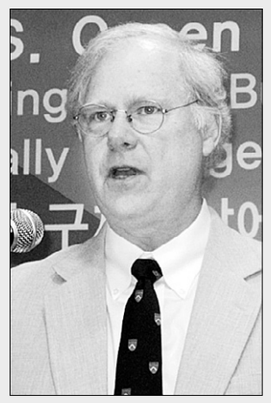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원장이 '시간과 실재-청송 고형곤의 존재론'을 발표했다. 이어 신지영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가 '선과 기호'란 제목으로 들뢰즈의 관점에서 선의 의미를 고찰했다.

또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가 '선, 존재론적 평면화와 평등의 정치학'을, 박인성 동국대 교수는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공명'이란 주제를 통해 선과 위빠사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열반에 이르는 측면에선 두 수행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변희욱 박사는 '알지 못함(不知), 간화의 지렛대: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를 주제로 선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은 치유자 · 사회개혁가"

퀸, 東大 BK21 초청 강연



4대강 사업, 종교편향, 정부외압설 등 주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불교계는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생명살림불교연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불교환경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불교단체의 참여가 그것이다.

소승 · 대승불교와는 달리 사회운동, 정치적 변호 등 새로운 신행패러다임을 제시한 참여불교를 고찰하는 자리가 열렸다.

동국대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후원으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를 6월 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에서는 하버드대의 크리스토퍼 퀸(Christopher S. Queen · 사진) 박사가 강단에 서, '참여불교에서 구제대상에 대한 의미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퀸 박사는 "사회참여불교는 인권, 분배적 정의, 사회발전 등의 지구적 대화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개념들은 초기불교(소승), 개혁불교(대승), 종합불교(금강승)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행의 전반적인 패턴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며 불교전통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퀸 박사는 "부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고통 등 모든 종류의 고통을 치유하려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처님은 스승이자 치유자이며, 승가라는 사회제도를 설립했으며, 기금 조성자이며 사회개혁가였다. 모든 카스트로부터 남녀를 받아들였으며 가장 악명 높았던 앙굴리말라까지도 비구로 받아들였다"며 "초기 가르침이 지시하는 사회적 정치적 지침들을 전통적 불교는 효과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참여불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극복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퀸 박사는 참여불교가 새로 가져온 것은 '투쟁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불교인들이 수동적이며 압제와 제도적 폭력 앞에서 내성적이기만 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 '교육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모두 자유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퀸 박사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세계종교를 강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서구에서 참여불교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바레불교학센터(Barr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대표, 젠국제평화유지단(Zen Peacemakers International) 이사를 맡고 있다. **이나은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15일 시상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5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하림각) 3층 아젤리아홀에서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4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를,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의 종명과 종조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가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를, 원혜영 대진대 외래교수가 '마라의 악몽'을 발표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봉 행

慧山堂 明秀大宗師 浮屠搭 奉安法會案內

신록(新綠)이 풍성(豊盛)한 화친지절(花親之節)에 문도형제(門徒兄第) 여러분
사부대중(四附大衆) 모두가 평안(平安)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우리의 큰 스승이신 慧山堂 明秀大宗師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부도탑 봉안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큰스님의 유교(遺敎)를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 간 : 2010년 6월 19일 (음 5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능혜사 (주지 법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13번지
031)832-4122, 011-9257-4122
주 관 : 혜산당대종사 문도회

문도회장 보운(寶雲) 합장

慧山堂 明秀大宗師 부도탑 건립 추진위원회

제4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불교학을 전공하는 소장학자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제정한 학술진흥사업입니다. 학술상 상금은 1사찰 1논문 지원 프로젝트에 의해 선학원의 소속 사찰에서 소중한 정재(淨財)를 후원하였습니다.
불교학 연구자와 불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 순

◆1부 : 시 상 식(2:00 ~ 2:40)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인사말씀
(법진스님, (재)선학원이사장 ·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 시상식
· 축 사 (인환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고문)
· 축 사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 양현재단 이사)

◆2부 : 학술회의(3:00 ~ 5:40)
· 좌 장 : 인환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고문)
· 사회자 : 최종석 (금강대학교 교수)

제1주제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
· 발 표 :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토 론 : 정은우 (동아대학교 교수)

제2주제 한국불교의 종명(宗名)과 종조론(宗祖論)에 대한 역사적 접근
– 臨濟太古法統과 曹溪宗 전통의 결연 –
· 발 표 : 김용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토 론 : 박해당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제3주제 천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
· 발 표 : 이병욱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사)
· 토 론 :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제4주제 마라(Mara)의 악몽
· 발 표 : 원혜영 (대진대학교 철학과 초빙교수)
· 토 론 : 고영섭 (동국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일 시 불기 2554(2010)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장 소 AW컨벤션센터(하림각) 3층 아젤리아홀
후 원 (재)선학원 · 양현재단 · 정법사 · 풍주사 · 보성선원 · 불교TV · 불교방송 · 불교신문
문 의 02)734-9653, 9657

불기 2554(2010)년 6월

(재)선학원 이사장 ·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합장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신자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행복을 느끼며 아주 즐겁게 공부하고 수행해왔는데, 요즘 스님들의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면면이 보이고(더러 인간말종도 있더라고요), 신도들도 더러 해괴한 사람이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혐오감이 느껴져서 예전처럼 진지하게 기도도 안 되고, 스님들의 설법을 즐겁고 감사하게 들을 수 없게 되면서, 불자라는 것에 회의감도 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존경스럽습니다. 딱히 개종할 만한 종교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A 승재가의 그늘진 부분을 보니 불교발전이 어려울 것 속 많이 상하시죠? 1600년이란 한국불교역사 속에 승속이 함께 자자와 포살의 차원에서 정법구현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행을 하는 승가나 재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선행보다 악행이 잘 보이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사(邪)보다 정(正)이 많습니다.

잘못된 행을 보면 '나는 저런 행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또 다른 스승으로 바라보세요. 또 우리 불자는 항상 자신의 행을 돌아보고 정진함이 참 불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을 설하신 것과 같이 승속의 잘못된 행을 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교의(敎義)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을 하는 스님과 신도들도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스승·참도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들의 세속적인 면에 불교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상대 존경하는 마음이 참스승 참도반 만들어요

Q 고3 수험생입니다. 예전부터 진리와 깨달음, 수행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출가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대학도 가야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출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찰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느 사찰이 좋을지, 스님이 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3 학생이니 무척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적성과 꿈, 환경 등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해가는 과정이죠. 지금 출가의 꿈을 밝히신 것도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대학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와중에 항상 출가의 뜻을 품고 계셨다니 놀랍습니다. 출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하고 계셨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스님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처럼 불교전문대학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불교 공부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또한 여의치가 않다면 스님을 만나 수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출가의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고, 부모님과도 상의해서 결정해야 수행정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형태의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극복이나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점은 수행을 통해 자기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론에 밝다 하더라도 지식적 알음알이에 그친다면 문자놀음에 불과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론과 수행의 일치가 이루어져 중생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불교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 수행의 근본 지향점과 참된 의미가 있지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부처님 가피 속에 숨쉬고 치료해요

희망법당 탐방
부산의료원



시립부산병원 법당 선우도량은 효종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찾아가는 법회를 병동복도에서 봉행하고 있다.

2층 로비서 행려환자 위한 토요법회 '인기'
꾸준히 수행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

5월 29일 오후 1시 30분. 시립부산의료원 2층 '병동 복도'에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춘희(59 · 법명 안락화)씨는 법회 시작 30분 전부터 휠체어를 탄 환자들을 일일이 맞이한다.

"보살님, 어서오이소. 잘 지냈으예~."

선우도량을 5년 동안 지켜온 김춘희씨의 환대에 환자들의 얼굴에 꽃이 핀다. 병실에서부터 혼자 휠체어를 밀고 온 환자들은 김보살과 부산경남포교사단 교정교화 애어팀원(팀장 박양식, 법명 무상)들을 발견하자 아들, 딸을 만난 것처럼 살갑게 인사를 나눈다.

시립부산의료원 내 법당 '선우도량' 주지 효종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주2회 찾아가는 법회, 하루 2번 예불을 열어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곳 환자들은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병마와 홀로 싸우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독거노인 등 행려환자들이다.

복도자판기 앞에 불화를 내걸면 40여 평의 2층 로비가 순간 법당으로 탈바꿈한다. 오후 2시가 되자 1시간 전 15명 남짓이던 환자가 100명에 다다랐다. '병동 복도'에서 행려환자를 위한 토요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자원봉사 금수팀 이종석(법명 고불) 포교사의 집전으로 <예불의식집>에 따라 <천수경>부터 예불, 관세음보살 정근, 발원문 봉독, <반야심경>, 사홍서원, 해탈주, 산회가 등을 차례로 이어갔다.

고령의 환자들은 의식집을 펴들고 어눌한 발음으로 더듬더듬 따라 읊어 내려갔다. 불경을 외는 순간, 이들은 병마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법회에만 집중하는 듯 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링거주사를 뽑고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해보였다. 앉은 채로 합장 반배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지켜보던 간병인들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효종 스님은 법문에서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베풀고 회향할 수 있는 마음"이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몸 관리 잘하는 등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와 참선, 법문 등 꾸준히 수행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병원 문을 나선 후에도 인색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어떠한 일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근심걱정을 덜어내 줄 것"이라고 설했다.

환자와 간병인들이 효종 스님의 법문에 심취해 있는 중에도 봉사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환자들을 향해 있다. 합장을 할 여력도 남지 않은 어르신들의 두 손을 맞잡아 함께 합장해주는가 하면, 작은 헛기침 소리라도 나면 이내 곁으로 다가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핀다. 이들 봉사자들 덕분에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을 법회가 편안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된다.

1시간 후 법회가 끝나자 봉사자들은 법회에 참석한 환자들이 각자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양말과 속옷, 간식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속옷이나 생필품 등은 흔하지만 가난한 행려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다. 이러한 선우도량 효종 스님과 김춘희 보살, 그리고 부산경남포교사단의 따뜻한 포교로, 매주 토요법회에 참석하던 한 행려환자는 퇴원 후 부산의 모 불교대학에 입학해 포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다.

김춘희 보살은 "법회 도중에도 환자들에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정말 힘들지만, 직접 간병이나 목욕봉사를 통해 얻는 환희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며 "항상 참회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음 세상에 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고 발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를 훌쩍 넘어서고 토요법회를 위해 2층 로비로 옮겨갔던 탱화와 촛대, 목탁 등의 불기들도 지하 1층 선우도량 법당으로 모두 돌아왔다. 법당에서는 애어팀원들과 김 보살이 오늘의 법회에 쓰인 공양물의 지출결산과 가벼운 평가가 오갔다.

누군가는 병을 안고 병원을 찾아오며, 또 어떤 이는 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이곳은 부처님의 자비가 절실한 곳이다. 요즘 종합병원은 저마다 작은 법당을 마련해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병원장이 불자이거나 불교계 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일 경우에는 병원 내 법당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날을 위한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 법당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환자가 적고, 관리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선우도량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시립부산의료원 부루나 존자들은 한결같이 기도한다.

"선우도량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자로 거듭나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제1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생 모집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갈등하고, 조화롭게 양립해 나가기 힘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률 저하와 이혼, 가족해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되는 사회의 부정적 제반문제를 최소화 하고 건강가정의 육성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지킴을 위해 상호존중과 균형있는 역할 분담 등 미래지향적인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8시간, 가정복지 20시간, 상담학 13시간, 가족심리 치료통합 접근 20시간, 다문화 복지론 8시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 14시간, 상담실습 10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내용 -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10년 6월 28일 ~ 8월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 15시)**
4.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교육장 (TEL 02)810-5075)
5. 수 강 료 : 9만원 (당일 10만원)
6.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신청. 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10년 6월 2일 ~ 6월 28일까지
9. 문 의 처 : 02)738-5586 / 02)735-040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주 관 : 사단법인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후 원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5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인종 뛰어넘은 화합의 노래꽃 활짝

제1회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



① 서울 인헌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원더풀 코리아'를 부르고 있다. 합창단을 이끈 김자미 교사는 지도자 특별상을 수상했다.



② 제1회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에 참가한 아이들과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 이현정 소장, 김성회 사무총장, 각 후원기관 대표들이 대회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했다.



③ 전남 무안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네잎 클로버'를 부르고 있다. 학생들은 '수줍은 미소 네잎 클로버'라는 가사 맞춰 귀여운 율동을 선보였다.



안산 브라보합창단의 지도교사들이 제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브라보합창단이 금상을 수상하자 지도교사들은 응원보다 더한 열기로 환호했다.

예선 꼴찌 안산 초당초 '대상' 받아
평등 외친 불교가 다문화 문제 해결책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성이 길러지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 많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합창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는 첫 대회임에도 합창 부문에 9개 팀, 중창 부문에 10개 팀이 출전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팀 모두 5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됐다.

서울, 가평, 시흥, 정읍, 곡성, 김해, 양주, 포항 등 많은 지역에서 참가했지만 그중 안산의 이력은 색달랐다.

다문화 도시로 불리는 안산에서는 안산 소년소녀합창단 · 안산 원곡초 · 선부어린이집 다문화 어린이들이 '브라보 합창단'이란 이름으로 출전했다.

안산 선부어린이집 김복이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홉 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다"고 말했다.

서른 세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아이들은 정미나 교사의 지휘에 맞춰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불렀다. 아름다운 선율과 귀여운 율동으로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무대를 선사한 브라보 합창단은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산에서 온 또 하나의 팀인 안산 초당초등학교 학생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 무대 정렬이 끝난 아이들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국, 태국, 일본 등 각국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선보였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현정(안산초 4) 학생은 "연습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친해졌다. 연습을 많이 한만큼 1등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학생은 무대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관객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대회 심사는 이민정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음악 전문가 4명과 진영 국회의원이 맡았다.

합창부와 중창부에 각각 동상, 은상, 금상, 지도자 특별상, 대상이 시상됐으며 대상 수상 팀에게는 해외견학의 특혜가 주어진다. 대상과 금상은 합창 부문에서 안산 초당초 · 안산 브라보합창단이, 중창 부문에서는 경남 진해 덕산초 · 곡성 삼기초가 각각 수상했다.

안산 초당초의 대상은 여느 팀보다 의미 있었다.

이현정 소장은 "대상을 수상한 안산 초당초는 예선에서 제일 부진한 팀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본선 무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한 달 만에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놀라웠다. 어린이들의 가능성은 개발 할수록 무한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은 "부처님은 이 세계가 한 송이 꽃과 같다고 했다. 모든 존재는 질적으로 동등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김세영 이사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다문화가정 자녀이다"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이현정씨는 한국다문화센터 레인보우 합창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항상 다문화가정을 지켜보며 늘 고민하는 그녀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 하는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현정 소장은 "우리나라는 2009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호구 조사를 했다. 그때 결과가 115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그 통계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동포가 제일 많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상당수가 조사에 참여 하지 않았다. 그들을 포함하면 국내 외국인은 20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 이현정 소장은 "현재 다문화 운동의 80%정도를 기독교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님은 카스트제도를 없애자고 했을 만큼 평등을 강조하셨다. 불교야 말로 한국에 닥친 다문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종교이다다. 그런 점에서 불교계에서 다문화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멀어 보인다. 평소 학교, 기업체, 국가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이현정 소장은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교육을 들으러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다. 불교계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며 아쉬워했다.

김성회 사무총장은 "다문화 합창대회가 한국 사회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한국다문화센터에서 진행중인 대학생 다문화 자녀 온라인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 예비학교' 건립정책자문단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의 마지막 무대는 서울 재한 몽골학교의 스무 명의 학생들이다. 김진성 교사의 지휘에 맞춰 부모의 고향과 피부색이 다른 스무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를 합창했다. 학생들은 처음 서보는 무대에서 긴장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래를 불렀지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관객들의 박수를 불렀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생명나눔 백일장
부산시장상 등 수여

5월 30일 영광도서에서 열린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에 중 · 고교생 참가자들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몰려 열띤 경합을 펼쳤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영광도서 내 문화사랑방에서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백일장은 대상 2명과 금상 4명이 수여되며, 부산광역시장상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으로 제정됐다.

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은 "이번 백일장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원을 더욱 늘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줌은 물론, 이번에 화제가 된 부산시장상 및 교육감상 이외에도 권위 있는 상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마음동산 꾸미기
우곡선원 초심자 교육

선의 일상화 · 대중화 · 세계화에 앞장서는 참선도량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제58, 59기 초심자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 교육을 실시한다.

6월 8~29일 총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참선 교육은 해운대 오션타워 내 우곡선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10시 2시간씩 마련된다.

교육 내용은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실수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선 기공체조 △사람의 참품세 △참선 입문론 △날숨호흡의 정의 △선입문의 예(禮) 등이진행된다. (051)740-6299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불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죽육기 145,000
02)2004-8216

"십선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천태종 삼광사 십선실천운동 대법회 봉행… 십선 실천 수첩 배포


김석조 신도회장의 선창으로 법회에 참여한 신도들이 '십선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09년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 독 릴레이 기도'로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에 귀감이 돼온 삼광사 불자들이, 이번에는 '십선실천운동'으로 수행의 생활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6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십선실천운동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십선(十善)이란 열 가지 선행을 이르는 말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개인완성, 불국토 건설, 법성체 결합'과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등 삼대 강령 및 지표에 담긴 천태종단의 종지종풍을 실현하기 위해 불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을 공표했다.

이는 △불살생(不殺生) 모든 생명을 살려주라 △불투도(不偸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라 △불사음(不邪婬) 바르고 맑은 행동을 하라 △불망어(不妄語) 바른 말을 하라 △불양설(不兩舌) 실다운 말을 하라 △불악구(不惡口)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을 하라 △불기어(不綺語) 참다운 말을 하라 △불탐욕(不貪慾) 모두에게 골고루 베풀어라 △불진에(不瞋恚) 모두를 자비심으로 대하라 △불사견(不邪見) 슬기롭게 생각하라의 10가지 덕목으로 구성돼 향후 1년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특별 법문에서 "<유마경>에서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며 '일심청정이며 국토청정'이라고 한 만큼 우리 모두가 계행을 실천할 때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이라며 "십선의 실천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근거해 대조사 스님의 법어를 따르는 수행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종교와 생활은 둘이 아니기에 십선운동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좋은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냇물이 열반의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깨달음의 수승한 공덕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삼광사는 신도 전원에게 특별 제작한 '십선 실천 수첩'을 배포하고, 십선발원문과 함께 매일 실천 여부를 기록하며 철저히 수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혜원의 뜨락에서 차 한 잔
혜원 차문화 축제 성료… 차문화 견학


혜원 차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 비비기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야생 차밭을 보유한 혜원정사(주지 원허)의 '혜원 차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가람 뒤편으로 회주인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이 손수 가꿔온 1000여 평 규모의 야생차 밭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1년 사이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일원에서 차 문화체험 입재식을 시작으로 차밭 견학 및 차 잎 따기, 차 덖고 비비기 등 차 만들기 체험, 육법공양, 108헌다례, 다시(茶時) 낭송, 어린이 다도 시연, 대금 연주, 두리차회 등이 진행됐다.

축제는 지난해에 진행됐던 '차문화 축제'를 단일 행사로 독립시키고,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종) 등 다인 150여 명이 참가해 진정한 다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진실성 다인회장은 "작년 첫 출발을 알리고 차를 통한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다인들이 참석해 각기 다른 전통의 다도(茶道)와 다향(茶香)을 선보였다"며 "이에 2회, 3회 이어갈수록 다인들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차문화를 선도하고 보급하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다도가 아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혜원정사 다인회는 다맥을 전수한 조실 고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 다법과 규범을 익혀 대중에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차밭과 다맥을 전수한 고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의 다법과 규범을 익히고 보급하는 다인회가 있는 저희 혜원의 뜨락에서 차문화를 보급하는 일은 당연하다"라며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차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혜원정사 다인회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 단체를 대상으로 차문화 체험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051) 866-777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여래사불교대학 종우 스님

포도 금낭화 해바라기 '등' 변신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예년에 비해 형태 및 소재가 다양하게 진화한 창작등이 눈에 띄었다. 그 중 창작등 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쥔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과 고안자 종우 스님(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부산연등축제는 한마음선원이나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등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행사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종우 스님은 이번 첫 출품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연등축제를 장식했다.



종우 스님은 이번 등 제작에 대해 "기초 교리 강의에서 불교교리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 지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의 이미지를 등에 대입해 불교지만 불교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등을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에게 대상을 안겨준 작품은 포도등과 금낭화등, 해바라기등, 금강저등이다. 하지만 이 밖에 제등행렬에서는 바나나등, 부케등, 수련등, 파인애플등 등을 합쳐 약 10여 종의 다양한 등들을 선보였다.

스님은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은 불자들과 함께 창작등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축제에서는 참신하고 아름다운 등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부산 광복로 문화 거리 일대에는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이 만든 등들이 화려하게 수놓아 져, 10~20대 젊은 층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는데도 한 몫을 했다.

종우 스님은 이번 등 제작 연유에 관해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등을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지구상 모든 무정, 유정물이 부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모습을 단지 등으로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인간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도 자연도 꽃과 풀잎도 모두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는데 다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려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맡아, 등을 만들어서 온 대지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연등이라는 것에 국한돼 있었지만, 그 형태를 바꿔보려던 제 의도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종우 스님과 여래사불교대학은 부산연등축제가 막을 내린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내년에 선보일 창작등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

"저희는 그동안 부처님 오신날마다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등을 만들었고, 올해 처음 부산연등축제에 참여했어요. 너무 쉬운 말인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존 등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아름답고 특별한 나만의 등, 우리 절만의 등을 만드는 데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우 스님의 환희심이 오롯이 담긴 등들은 지금도 여래사불교대학 건물 내를 환하게 불 밝히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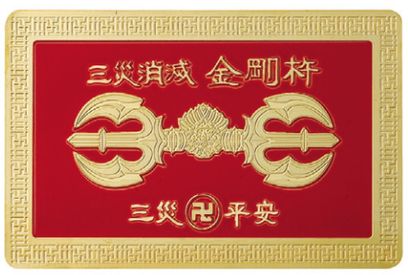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산재, 화합을 기원하며…



영산재 시연으로 국가안녕과 경제성장 기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불교문화를 넘어 세계 속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산재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음력 4월 24일) 도심 속 산사 봉원사 영산재 특별도량에서 봉행됐다.

2010년 국가안녕과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주제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열린 이번 영산재는 봉원사 대중스님을 비롯한 영산재 보존회 회원 등 300여 스님과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영산재는 이제 명실상부한 봉원사 및 태고종의 최대행사로 자리잡았다. 지난 20여년 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던 영산재는 이제는 불교공연문화의 대표격이 됐고 한국 전통 문화의 한 축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인지도 면에서도 급격한 확산을 보이며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웠다.

이러한 영산재의 위상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국가적으로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진행된 영산재는 범패와 바라춤 등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불교예술의 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매년 시연돼 온 영산재는 2007년부터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6월 6일 현충일에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영산재에서는 나라를 위해 순직한 천안함 전몰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가 함께 봉행돼 의미를 더 했다.

"영산재 세계적 문화공연 만들 터"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제22회 영산재'를 주관한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전수교육조교)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첫 시연회 인만큼 더욱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키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유산의 집 '상상의 축제' 초청 공연, 벨기에, 일본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캐나다 수류무용제 공연, 중국 종교국 초청 '쓰촨성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 시연 등 세계 각국에서 영산재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3월 11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G-20정상회담 성공개최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등재 기념 2010영산재를 봉행해 국가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의 종교적 숭고함을 알린 바 있다.

이날 영산재 시연에는 일본 교토 세심암, 감로사, 인도 등에서 온 스님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세계 각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일운 스님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이후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로 의미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산재를 알림으로서 영산재가 불교행사를 넘어 한국전통문화, 세계공연문화로 확고히 자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산재 및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Temple stay)프로그램 등도 마련하여 불교문화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일운스님은 "기존의 템플스테이 형식을 벗어나 영산재의 본 뜻과 현장감 넘치는 체험 및 한국전통문화와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였다.

향후 영산재 보존회는 영산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봉원사의 중.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설공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보통 3일간 진행되지만 짧은 영산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단도 만들 생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문화 예술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영산재의 다양한 예술성을 부각시켜 영산재가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워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영산재, 어떻게 진행되나?

영산재는 안차비와 바깥차비로 구성된다. 안차비는 순수한 불교의식절차, 바깥차비는 대중적인 전통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의식 절차다.

안차비로는 영혼을 모셔오는 타종시련(打鐘侍輦), 대령(對靈), 탐 · 진 · 치의 삼독을 씻어내는 관욕, 그리고 공양드리기 전 의식 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이 행해진다.

바깥차비는 안차비와는 달리 대웅전 앞이나 절 밖의 널찍한 마당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의식을 봉행하는 곳이 곧 도량임을 알리는 영산회상도를 내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된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단을 세운다. 불단에는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하단 등 삼단으로 구성한다.

괘불이운(掛佛移運) 이후 상단권공 · 영산작법(上壇勸供 · 靈山作法), 식당작법(食堂作法),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 중단권공(中壇勸供) 신중퇴공(神中退供) 관음시식/전시식(觀音施食/奠施食)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 등이 진행된다. 이중 상단권공(上壇勸供)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이유를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 시식(施食)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공양물을 대접하는 의식이다. 권공의식을 마치면 재를 치르는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게 되는 축원문이 낭독된다.

식당작법(食堂作法)은 영산재 의식 중 백미로 참석한 대중이 엄정한 절차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모든 공양물을 나누어 먹으며 고마움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봉송(奉送)은 의식에 청했던 대중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극락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산재란?

영산재(靈山齋)는 약 2600년 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중생들 앞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시는 그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대중들이 불법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등 뭇생명이 화합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장엄한 의식으로 펼쳐진다.

영산재는 의식절차에 음악 · 무용적 요소가 녹아 종합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음악 · 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 중에 범음(梵音)과 화청(和請) 등이 음악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교 음악에 맞춰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3현6각, 호적, 취타 등의 전통 악기가 동원된다.

영산재는 영산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영산재보존회에서 이러한 영산재 관련 의식을 보존 · 전승하고 있다.



▲시련



▲관욕



▲천수바라



▲도량게 나비무



▲봉송

“부석사, 아무나 그곳에 가게하고 싶지 않았다”



사물을 울리고 난 사미와 행자가 저녁예불을 올리기 위해 무량수전으로 오르고 있다.

소설 ‘부석사’에서는 볼 수 없는 ⓫ 영주 부석사(浮石寺)

“왜 그때 부석사가 떠올랐는지. 부석사의 당간지주 앞에서 무량수전까지 걸어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절집이 대개 산 속에 있게 마련인데 부석사는 산등성이에 있다고 했다. 문득 뒤돌아보면 능선 뒤의 능선 또 능선 뒤의 능선이 펼쳐져 그 의젓한 아름다움을 보고 오면 한 계절은 사람들 속에서 시달릴 힘이 생긴다고 했다.”

신경숙(1963~)의 단편 ‘부석사(2001 이상문학상 대상)’에서 여자 주인공 ‘그녀’는 남자 주인공 ‘그’에게 1월 1일 부석사에 함께 가자고 한다. 각자 실연(失戀)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그녀와 그는 새해 첫 날 차가운 바람을 뚫고 부석사를 향해 간다.

그녀와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이 여전히 아름다운 간격으로 서있고, 그 안에 변치 않는 무량수불의 눈빛이 순간과 영원을 오가고 있었다. 부석사는 당나라 낭자 선묘가 연모했던 의상 스님이 676년(신라 문무왕 16)에 세운 절이다. 선묘는 사랑을 이룰 수 없었다. 유학을 마치고 당나라를 떠나는 의상 스님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선묘는 사람의 몸을 버리고 용이 되어 스님을 따라온다. 용이 된 선묘는 불사를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스님을 지켰고 스님은 부석사를 세울 수 있었다. 그 때 선묘는 바위를 들어 올려 그 무리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무량수전 뒤에 있는 그 바위에는 ‘부석(浮石)’이 새겨져 있다. 그녀와 그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이젠 어떡하죠?”

“눈이라도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지나가겠죠. 우선 추우니까 차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려 보죠.”

부석사를 향해 가던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 헤매던 중 차가 진창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아찔한 낭떠러지 앞에서. 두 사람은 어두워진 차 안에서 상념에 젖는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린 P를, 그는 군대에 있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K를 생각한다.

삼층석탑 뒤편 숲으로 커다란 수리 한 마리가 날아 들어갔다. 작은 새들이 서둘러 숲을 나왔고 파랗게 질린 울음소리가 무량수전 마당으로 뚝뚝 떨어졌다. 국보인 석등 앞에는 부석사의 극락인 안양루가 허공 끝에 걸려 있었다. 그녀와 그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산길 낭떠러지에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희미한 범종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찾지 못한 부석사가 바로 근처에 있는 건가.” 종소리가 눈발 속의 골짜기를 거쳐 그들을 에워싼다. “부석사의 포개져있는 두 개의 돌은 정말 닿지 않고 떠있는 것일까.” 그녀는 문득 잠든 그와 자신이 부석처럼 느껴진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동차 유리창을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차 안에서 소설은 끝이 난다. 끝내 소설은 그들에게 부석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신경숙의 ‘부석사’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 뒤에 겪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 한다. 작가는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두 사람을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 앞에 세운다. 하지만 소설은 끝내 부석사를 보여주지 않는다.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몇 해 전 1월 1일에 부석사에 다녀왔다. 동행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현실 속의 작가는 부석사를 다녀왔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부석사에 이르지 못하고 눈 내리는 소백산 어느 낭떠러지 앞에 서있다. 작가는 “현실의 부석사는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도 없지만, 소설 속에서는 아무나 그곳에 가게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한 계절 사람들 속에서 시달릴 힘이 필요한 사람은 부석사를 찾을 일이다. 능선 뒤의 능선 또 능선 뒤의 능선이 펼쳐져있는 그 의젓한 아름다움을 보고 와야 할 일이다. 그리고 길을 잘 찾아야 할 일이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절이기 때문이다.

사물(四物)을 울리고 난 사미와 행자가 안양루를 지나 무량수전으로 올라갔다. 저녁예불이다. 안양문으로 저녁 해가 따라 들고, 극락문을 건너간 사미와 행자의 그림자가 안양루를 기웃거렸다. 그녀와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석사를 오르다 돌아보면 소백산의 아름다운 능선들이 의젓하게 펼쳐져 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8〉

부처도 일체중생을 위해 번뇌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설법했다.

"이 일은 명주(明珠)가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야만인(胡人)이 오면 야만인이 나타나고 한인(漢人)이 오면 한인이 나타난다. 노승은 한 가닥의 풀(草)을 가지고 1장 6척의 황금신(黃金身)을 만들어 쓸 수 있고 1장 6척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가닥의 풀을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부처가 곧 번뇌이고 번뇌가 곧 부처이다."

師上堂云 此事如明珠在掌 胡來胡現 漢來漢現 老僧把一支草 作丈六金身用 把丈六金身 作一支草用 佛卽是煩惱 煩惱卽是佛

이 일이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도(道)의 심층부를 한번 깨달으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명주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능수능란한 귀재가 된다. 따라서 거친 사람이 오면 거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고귀한 사람이 오면 고귀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서 모두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선사는 만일 선(禪)에 대한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척 하고 한마디 들어보면 그가 어느 경지에 있는지 금방 알아버린다. 따라서 사람과 대담하는데 별스럽지 않는 풀 하나를 가지고도 상대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무기로 둔갑시켜 혼절시킬 수 있고, 혹은 귀한 보도(寶刀)와 같이 뛰어난 문장도 한 낱 휴지처럼 구개에 내다버리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 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한 마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알아버린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중생은 그 재능이 묻혀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차별은 없고 평등만 존재한다.

학승이 물었다.
"부처는 누구를 위해 번뇌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번뇌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면하여 뭘 하겠는가?"

問 佛與誰人爲煩惱
師云 與一切人爲煩惱
云 如何勉得
師云 用免作麽

부처가 번뇌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돌이나 나무일 것이다. 부처도 일체 중생을 위해 번뇌한다. 선사가 번뇌가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돌이나 나무일 것이다. 불법은 사람을 무정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나 선사가 번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진정한 부처라면 환경 문제에 대해 뜻있는 사람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진정한 선사(禪師)라면 지구촌의 이상 기온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번뇌할 것이다.

불법은 지구 위에 있는 뭇 생명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한 진리를 설한 것이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는 종교로서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종교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장차 보통 사람과 함께 끝까지 호흡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종교는 언제까지나 살아남을 것이다.

선사는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지도
불교는 마음으로 시작해 마음으로 끝난다

조주 스님이 상당하여 설법했다.

"노승은 이곳에서 본분사(本分事)로서 학인을 지도한다. 만약 노승보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지도하라 한다면 3승 12분교로써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뒤에 솜씨 좋은 한 선지식을 만난다면 노승이 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다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본분사로서 그를 지도할 뿐이다."

師示衆云 老僧此間 卽以本分事接人 若教老僧隨伊根機接人 自有三乘十二分教 接他了也 若是不會 是誰過歟 已後遇著作家漢也道 老僧不辜他 但有人問 以本分事接人

선사는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지도한다. 본분사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과 우주의 근원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남종의 선법이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근원을 꿰뚫게 하는 선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적으로 교종만 우뚝 서 있었다면 불교는 오늘날 미신과 같은 종교로 인식돼버렸을 것이다.

선사는 근기에 상관없이 항상 본분사로서 사람을 제도한다. 만약 사람의 근기에만 맞추어 제도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교법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법해서는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을 중시하는 교종에서 화엄경의 '중생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어떻게 교리로써 전달할 것인가? 선은 가지를 쳐내고 바로 들어가게 하여 사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대승의 교리에 직접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선법이야말로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최적절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묻는 자가 있어야 답도 있을 것이고 본분사로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사는 화두와 격외구 등을 들어 설법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묻게 만드는 것이다. 묻는 순간 선사의 대답은 곧 묻는 자의 뇌리를 때리게 되므로 깨달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즉심(卽心)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학인의 상량(商量:헤아림)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즉심을 놔두고 도대체 무엇을 상량하겠다는 것인가?"

問 從上至今卽心是佛 不卽心還許學人商量也無
師云 卽心且置 商量箇什麽

옛날부터 불교는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해왔다. 마음이 부처, 중생이 부처라는 말은 모두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마음은 원래 편안하고 태평하다. 이 평온한 마음은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나온 천부적인 재질이다. 때문에 불조(佛祖)가 수없이 마음이 부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닦지 말고 그 평온한 마음만을 잘 간직하기만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마음 외의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불자들이 상량할 것은 없다. 인생사 희비애락이 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한번 쉬어지면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하면 땅바닥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천당에 가도 불편할 뿐이다"라고 설법하지 않았는가. 인간사가 다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제외하고 더 이상 무엇을 상량하고 연구할 것이 또 있단 말인가.

불교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낸다. 일단 마음이 한번 편안해져서 일평생 동요가 없다면 그 사람이 곧 금강불퇴지(金剛不退地)의 지혜를 얻은 부처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3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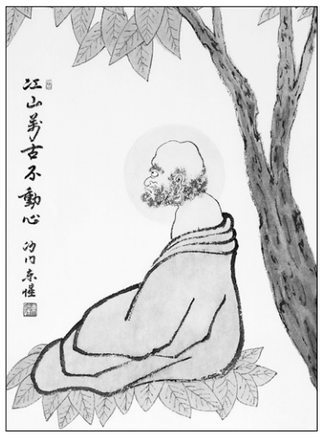
안을 비춰 각관을 밝히다

#망령되이 불상이나 절을 조성하지 말아라

요즘 천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직 형상 세우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재물을 많이 허비하며 물이나 육지의 중생을 많이 상하게 하며 망령되이 불상과 탑을 세우느라. 헛되이 사람들을 수고스럽게 하여 나무나 진흙을 쌓아 올리고 울긋불긋 단청을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더라도 자기를 손해나게 하고 남도 미혹하게 하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유위법을 보면 끈질기게 집착을 하는데 무상(無相)을 말해주면 멍청하여지니 바보 같구나.

또 세상의 조그마한 즐거움을 욕심내느라 다가오는 세상의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닦고 배우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며, 올바른 것을 등지고 삿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복을 얻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원문]
竊見今時淺識 唯知立相爲功 廣費財寶 多傷水陸 妄營像塔 虛役人功 積木壘泥 塗青畵綵 傾心盡力 損己迷他 未解慙愧 何曾覺悟 見有爲則勤勤愛着 說無相則兀兀如迷 且貪世上之小樂 不覺當來之大苦 此之修學 徒自疲勞背正歸邪 言獲福


寒山 · 拾得 · 豊于 三聖圖 · 69x 46cm. 동성 스님 作.

[해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지구와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도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겪는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현들은 사람들이 마음 닦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대형 불사로 많은 미물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될 지도 모르는데 언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원자가 1초에 99억 번을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말씀 하시고 일체 현상계는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상한 현상계에 집착을 하는 중생에게 무상의 이치를 설명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추구하는 오욕락(五欲樂)은 일시적인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 하고, 그로인해 자신이 윤회의 굴레에 속박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모든 물질세계는 변해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로운 불사에 집착해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라 하면서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일이 되고 복을 얻는다는 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관(觀)하도록 당부하노라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출 수만 있다면 각관(覺觀: 마음의 조악한 작용과 자세한 작용)이 항상 밝으리라. 삼독의 마음을 끊어서 영원히 없어지게 하고 육적의 문을 굳게 닫아서 번뇌가 침입하여 방해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면 항하의 모래 수 같은 공덕과 온갖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낱낱이 성취할 것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만큼이나 가까운 것이니라.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는데 어찌하여 흰머리가 되도록 수고하리요. 진실한 법문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나마 마음 관(觀)하는 것으로 그 일부분을 밝히노라.

[원문]
但能攝心內照 覺觀常明 絶三毒心 永使消亡 閉六賊門 不令侵擾 恒沙功德 種種莊嚴 無量法門 一一成就 超凡證聖 目擊非遙 悟在須臾何煩皓首 眞門幽秘 寧可具陣 略說觀心 詳其小分

[해설]

일체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마음을 집중해 안과 밖의 경계가 끊어지면 본래 진여당체가 드러나 밝아집니다.

탐 · 진 · 치 삼독심(三毒心)은 아직 우리가 진여당체와 하나가 되지 못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과거 무수한 삶을 통해 익혀온 업력이기 때문에 업력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으며 끊임없는 정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적의 문을 굳게 닫아 번뇌가 침입해 방해하거나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면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육경 대상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안심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두나 염불 기타수행을 통해서 정진한다면 우주와 하나가 되어 무한한 공덕과 우주를 마음대로 잡아 쓸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며 영원히 성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고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깨닫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이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오직 정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무상한 것인데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됩니다.

실상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에 안과 밖이 없으며 어디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자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인이라 하더라도 입을 뗄 수 없는 자리이기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종도를 모십니다

아름답고 뜻 있는 삶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승려(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분들께서는 모두 연락바랍니다.

범음 · 범패 염불의식을
수강할 학인스님,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초활향 기초소리부터 제반의식 모두를 수학 전수합니다 -

◆ 상주권공반 (초급) ····· 1년
◆ 각 대 반 (중급) ····· 1년
◆ 영 산 반 (상급) ····· 2년

● 개강일 : **6월 15일(화) 오후 3시** · 매주 화요일 수업
별도 특강도 있습니다
종단 입종절차 문의는 총무원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주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24번지
연락처 : 070-8876-2848, 054) 974-4725 / 팩스 054) 974-472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율종 총무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신뢰성'**이 담보 되어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 교환 하실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개정** 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청정한 마음과 선행이 구세주

법산(붓다피야) 스님은 ...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범어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일타 스님을 은사로 모신 후 불국사, 정혜사, 은해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9년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다년간 정진했다. 현재 은해사 서운암과 대구 대각사 여래선원에서 재가자를 지도하고 있다.
〈금강경의 주장자, 빈손도 내려놔라〉 〈중도선〉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위빠사나 수행법 33일〉 등 저서가 있다.

대각사 창건주 법산(붓다피야) 스님

사량 · 분별 없는 마음챙김이 열반에 이르는 길

불교명상대학 지도자과정 개설해 여래선 전수

대구는 부산 다음으로 불자들이 많은 전통적인 불심도시이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근본불교 수행도량이 생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지하철 현충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위빠사나 수행전문도량 대각사(www.daegaksa.com)가 바로 그곳. 4층 건물을 매입해 창건한 이 도심포교당의 빌딩 벽에는 '불교명상대학 개강'이란 큼지막한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세로로 걸려있다.

대각사가 창건된 것은 5월 5일. 창건주는 은해사 서운암에 주석하는 법산 스님이다. 당대의 선사이자 율사인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과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온몸으로 참선과 위빠사나를 수행한 스님은 거해 스님과 함께 한국의 1세대 위빠사나 수행자로 꼽힌다. 전국에 300여 곳의 불교교양대학이 있지만 불교명상대학이 설립된 것은 이 곳이 처음. 특히 기존 요가지도자에 비견되는 불교명상지도자의 배출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고요한 산사에서 두문불출하며 토요일 위빠사나수행만 지도하던 스님이 대구 도심에 불교명상대학을 개설한 것은 물론 부처님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다.

"스님, 위빠사나의 정의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위빠사나를 '뭇 삶들의 정화를 위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탈을 향해 진리의 길을 나아가기 위한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빠사나란 자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잘 꿰뚫어 보고 감정의 속박과 느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신앙을 초월한 복락의 길이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보다 건전한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길입니다."

법산 스님은 대각사에 여래선원과 불교명상대학을 설립하고 7월 2일 입학식 겸 개강식을 가질 예정이다. 스님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법을 전해야 진정 내 제자이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불교명상대학의 설립취지를 설명한다.

"부처님의 8만 4천 경전이 중생의 병에 대한 처방전이자 약방문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알아서 교양을 갖춘들 수행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신앙의 왕초보로 생을 끝내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체험 없이는 남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만큼 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실참과 이론을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불교명상지도자가 배출되어 수행센터를 개설할 경우 간접적인 지도를 계속하며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스님은 교리강좌와 경전공부, 실참수행이 연결되어 선교겸수(禪敎兼修)가 이뤄지도록 불교명상대학 커리큘럼을 짰다. 〈대념처경〉 〈금강경〉 〈아비담마〉 〈청정도론〉등의 경전에서 위빠사나 수행과 직결되는 부분을 집중 지도하고, 수행을 체험하는 코스도 일반인들의 시간과 근기에 맞게 다양화 했다. 불교명상 체험코스는 3개월 과정, 지도자 코스는 2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른 위빠사나선원과는 달리 사띠 요가를 가르쳐 심신을 함께 닦는 점이 장점이다. 사띠 요가란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사띠 요가란 행주좌와의 일체 움직임 속에서 깊은 마음 챙김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념(사량 · 분별심)이 없는 깨어있음을 키워서 결국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요가로 몸을 다스리며 위빠사나 명상으로 마음을 길들여 헐떡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세수 65세. 적지 않은 연세에 불사를 일으킨 법산 스님은 마지막 회향하는 심정으로 도심수행도량을 열게 되었다고 말한다. 화 · 목 · 금요일은 대각사 여래선원에 나와서 수행자들을 지도하지만 나머지 요일은 영천 은해사 서운암에서 홀로 정진한다.

법산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을 접하고 '이 길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스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개인의 것만이 아닌 모든 이와 함께하는 행복이다.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남에게 사랑 받으려면 남을 사랑하고, 뺨을 맞으려면 남의 뺨을 때리면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이타행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타행(利他行)이 선이라면 이자행(利自行)은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善)이 창조와 발전의 에너지라면, 악은 파괴와 방해의 에너지입니다. 악을 행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선을 행하면 뒤로 넘어지면 홍시가 입에 떨어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줍습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은 '하필이면, 하필이면' 하고 살고, 선행하는 사람은 '다행이야, 다행이야' 하며 삽니다."

법산 스님은 악이 탐진치 3독에 중독된 상태라면, 선은 청정한 마음이자 구세주라고 말한다. 구세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청정심'이란 말이다. 큰 선업을 쌓으면 작은 악업들은 영향력을 잃게 된다. 마치 100와트 전구 아래서는 작은 촛불의 빛이 보이지 않듯이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1촉짜리 선업을 짓고도 100와트짜리 광명과 행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대각사 여래선원과 불교명상대학 불사와 함께 법산 스님은 법보시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법 33일〉과 〈중도선〉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등을 저술한 스님은 10여 년간 직접 편집해서 발행한 〈금강경의 주장자, 빈손도 내려놔라〉를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가제)으로 수정 · 보완해 출판할 예정이다. 장면마다 일화와 삽화를 넣어 보는 경전, 이해하기 쉬운 경전으로 만든 〈…빈손도 내려놔라〉(전 2권)는 〈금강경〉을 위빠사나 수행의 관점에서 해설한 역작으로 수행승들에게 입소문을 탄 방대한 분량의 역작이다. 이 책을 직접 저술한 까닭이 궁금했다.

"10여년 전 도올 김용옥씨가 〈금강경〉을 강의할 때, 절집안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강경〉은 스님들이 강의해야 하는데, 이건 직무유기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때부터 〈금강경〉을 해설하며 4년 동안 남방불교에서 관련 삽화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짊어진 걸망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다가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수세미



■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절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끈질긴 자아관념 놓아야 해탈

옵니다. 내가 가고 없어도 이 책이 남아 법보시가 된다면 다행이겠지요."

법산 스님의 <금강경> 해설은 위빠사나 수행의 관점에서, 그리고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해설되어 대승권 스님들의 해설과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스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4상(相: 관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상(我相)은 인도 브라만의 아트만 사상에서 비롯된 '나는 영원하다'라는 자아불멸론적 견해이며, 인상(人相)은 자아를 부정하는 대신 '몸과 마음인 개체가 참나'라는 순세파 유물론에서 비롯된 개아 단멸론적 견해입니다. 중생상(衆生相)은 '나는 운명론적으로 이미 정해진 생명체이다'하는 사명파의 존재 숙명론적 견해이며, 수자상(壽者相)은 자이나교의 영혼불멸론적 견해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로막는 이 네 가지 관념은 고정불변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상태가 견고하게 바왕가(生命識: 7식과 8식을 합친 개념의 識) 내부에 깊이 각인된 상태의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법산 스님에 따르면 바왕가의 본질을 알아서 4상을 타파해야만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왕가란 무엇일까?

"바왕가란 업의 기록과 기억을 저장하는 자료실인 동시에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선, 생명의 뿌리를 말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순간이나마 마음에 비춰진 모든 인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이것은 삶과 죽음, 재생이 있게 하는 존재의 씨앗이며 뿌리입니다. 저장된 바왕가식은 다음 탄생을 잇는 '재생의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고정불변적인 자아관념 즉, '나(我)'에 대한 자아의식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바왕가식의 성향과 이생에서 태어나 철이 들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며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쌓아온 관념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구속해서 부리는 고삐가 되어버렸다. 법산 스님은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먼저 이 끈질긴 자아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한다. 부처님께서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하고 이르시는 바도 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며, <금강경>의 가르침도 바로 이 에고(Ego)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설명이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자아관념을 놓아버리면 실재를 볼 수 있는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칭찬이나 비난, 사랑과 증오, 행복과 불행, 이익과 손해 등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왜 여기 나를 두고 무아(無我)라고 했을까? 수행자가 나라고 알고 믿는 내가 나 아닌 줄을 깨달으면 그때는 진정한 부처자리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법산 스님은 '고통이나 그 조건(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체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작업인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특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바른 노력, 마음 집중, 마음 챙김으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싫다, 좋다' 하는 분별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량 · 분별심이 약화되면 될수록 욕망의 사슬도 느슨해지고 행동반경도 그만큼 자유스러워져, 탐진치 3독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3조 승찬 대사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심을 쉴지니라(至道無難 唯嫌揀擇).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但莫憎愛 洞然明白)'라 한 법문과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수행을 통해 온갖 시비 · 분별에서 벗어나 무아 · 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전해온 여래선(如來禪)의 핵심이다. 여래선이란 조사선과 간화선이 성립되기 이전, 달마 대사로부터 5조홍인 대사까지 전해진 <능가경> 위주의 달마선(達摩禪)과 같다. 이른 바, '마음을 보는 한 가지 법이 일체 행을 총섭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고 하는 관심법, 즉 마음을 주시하는 심념처(心念處) 위주의 위빠사나이다. 간화(看話)니 묵조(默照)니 지관(止觀)이니 하며 구분하지만, 그 어떤 수행법이든 관법(觀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처님 수행법이다.

이러한 알아차림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 경지가 전개될까? 법산 스님은 지속적인 정진으로 보다 향상된 경계에 진입하면 할수록 하찮은 즐거움과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와 세간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지혜의 정도가 보다 완벽한 경계까지 향상되면 그때 '욕망의 버림이 행복이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뛰어넘는 것이 참 행복이다. 모든 법이 여여(如如)하다는 이치를 보는 것이 닙바나(열반)이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법인들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는 것 하나라도 생활속에서 실행해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세상이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온갖 경전 해설과 수행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수행하는 불자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일체의 물질적 정신적 관찰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사량 ·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대주 선사가 <돈오입도요문론>에서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 한 법어와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법산 스님의 말씀을 통해, 여래선과 조사선이 둘이 아님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6. 구화산 인덕대화상

중국 구화산은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곳곳에 사찰이 자리한 불국선경(佛國仙境)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구화산은 안후이성(安徽省) 서부 양현에 위치한 중국불교 사대명산 중 하나이다.

중국 구화산을 다녀 온 분들이라면 인덕 스님(사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구화산에는 많은 사찰이 있다. 그 중 기원사는 구화산 4대 총림 중 하나로서, 기원선사(禮圍禪寺)라고도 불린다. 구화산 기원사는 "인도불교의 성지로 석가모니 부처가 20여 년 불교를 선양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인덕(仁德) 스님은 현 중국 정부이후 기원사의 첫 방장을 지낸 분이다. 2001년 8월 23일 스님이 입적한 이후로, 기원사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방장이 추대되지 않고 있다. 스님은 구화산 방장이 되기 전부터 불교대학 학장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 왔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학대를 받아 왔던 분이다.

원래 학자였던 인덕 스님은 어떠한 사상도 불교를 능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주의 · 사상에서 배척당하고 죽게 된 인간이라도 부처님 정신 속에서 되살아난다면 사상을 초월한 초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지론이었다.

어느 날 모택동이 스님에게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대 제왕이 8만대장경을 만들었고, 학인들을 배출했다. 3황 5제 요순우탁 이후로 전한, 3국 · 5호 · 16국, 5대 · 10국 가운데서 불교를 배척한 임금은 넷뿐인데 모두가 단명횡사했고 왕조는 100년 역사도 갖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모택동은 스님의 말을 들은 후, 유 · 불 · 선 3교 가운데서 불교를 선택했다.

"유교는 계급차별이 있어 안되며, 도교는 이 세상을 버리고 노동하지 않으며, 단전복기로 신선되기만을 바랐으므로 현실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는데, 불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고 말해 노동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교 선택의 이유였다.



구화산은 1200년 전 신라왕자 김교각(金喬覺, 696~794)이 와서 생지장이 된 곳이기 때문에 주지가 돼 성지개발에 몰두했고, 한국관광객을 유치해 김교각 스님의 역사를 유별나게 부각시켰다.

그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 불자들의 방문을 허락하고 전 세계 화교들을 유치해 구화산 전체를 살아있는 역대 선지식들의 모둠 도량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생지장뿐 아니라 중국의 생지장을 자그마치 18분이나 복원해 모셨다.

한편 황유복씨는 여기에 힘입어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와 공부한 스님들과 유명인의 역사를 정리한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얻었다. 논문에는 백일법문의 거장 무상 스님, 화엄철학의 거두 의상 스님, 유식학의 태두 원측 법사, 삼론학의 거장 승랑 대사, 범패의 전수자 철감 국사, 무염 국사, 장보고 등의 이야기가 정리돼 있다.

특히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세계의 물길을 잘 알아,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된 사람들을 건져 법화원에 살도록 했으며, 연고가 없는 사람은 가정을 이뤄주고 농토까지 베풀어 살길을 만들어 줬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일본의 웬닌(關仁)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장보고 장군이 그를 구해 장안까지 구경시키고 당나라 불교를 수입하게 했다. 그가 당시 작성한 일기는 세계적인 구도기로 읽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인덕 스님은 마침내 99지장보살의 성상을 설계해 중국불교에서는 가장 거창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수년전 이 성상이 완성되어 세계의 구도자들이 한데 모여 추모행사를 실천한 일이 있다.

구화산 4대 총림 기원사 첫 방장… 모택동에게 불교 권해

또한 1997년 11월 4일 경주불국사에서 중국서 조성한 높이 3.2m, 무게 2.8t의 청동 지장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지장보살상 봉헌은 인덕 스님이 불국사를 방문해 봉헌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월하 종정, 월주 총무원장, 설정 중앙종회 의장, 김종호 경주 김씨 대종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6년 부처님오신날에 중국 안후이성 훼이리앙위(回良玉) 성장이 성정부 차원에서 지장보살상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훼이리앙위 성장은 "신라 왕자님을 1300년 뒤에 고향에 모시는 것은 양국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큰 뜻을 지닌다"고 말했다.

현재 기원사에서는 김교각 스님의 정신을 받들며, 많은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또, 인덕 스님의 유체는 기원사의 탑원에 봉안돼 있다.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간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③

사람다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

◆ 교수선정(敎授禪定)

"수행자의 좌선은 원래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움직임도(움직이지 않음도)말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허깨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眞如)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淨妄)이 생긴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淨縛) 된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가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自性)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道)와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또는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道)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앉음(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다.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相)을 떠남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定)이니라.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 정(定)이다.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부딪치게 되면 곧 어지럽게 된다. 모양(相)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定)이다. 밖으로 모양(相)을 떠나는 것이 곧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定)이니, 밖으로 선(禪)하고 안으로 정(定)함을 선정(禪定)이라 이름 한다.

<유마경>에는 '즉시에 활연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고 했고, 보살계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自性)이 청정하다' 고 했다.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볼지니, 스스로 닦아 스스로 이룸이 자기 성품인 법신(法身)이며, 법신 그대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道)이다."

육조 혜능 대사는 제자들에게 '교수선정(敎授禪定)'을 통해 어느 것이 선(禪)이고 정(定)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고어(古語)에서는 생각과 모든 것을 쉬어 버린다는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신수 스님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라는 말처럼 그대로 닦고 고르고 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을 느낀다면 행복을 추구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 의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定)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정(禪定)에 대해 잘 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사람을 길흉사도 점칠 수 있는 예지력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도인이라는 말은 도교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인은 선지식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식이라는 말도 예지능력이나 모든 도에 통달됐다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지식이라는 뜻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사와 장삼을 입었더라도 마음을 헐떡이는 자는 중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30~50년 동안 수행을 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선정삼매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항시 우리 눈앞에 널려 있는게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선방은 구조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록에 나오는 선방이라는 것은 간절심이 들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음을 여는 것인데, 한국은 격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

안으로는 고요해 움직임 없는 것이 선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성품은 본래 깨끗하다

육조 혜능 대사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좌선인가? 막힘과 걸림이 없는 밖으로 착함과 악함이 경계에 부딪쳐도 싫고 좋음의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坐)요, 안으로 성품이 맑고 고요해 움직임이 없는 것은 선(禪)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 서로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양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재해무상 재법무아라고 말하지만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일체가 허망하다는 생각을 머리로만 굴리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을 해야만 선정에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반연을 쉬는 것이 좌요, 안으로 헐떡임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어떠한 것이 선정인가? 밖으로 차별심과 분별심을 여읜 것이 선이요, 안으로 고요하고 맑아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정진함에 있어 밖의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게 되면 정이 흩어질 것이요, 차별심과 집착심을 거둬들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되면 다시 정에 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생각을 거둠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입니다. 좌선함에 있어 마음이 고요에만 집착해서도 안되고, 깨끗하고 맑은 데에만 집착해서도 안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합니다. 밖으로의 경계를 차츰 쉬어 안으로의 맑음이 스스로 찾아 들게 해야 합니다. 바람에 의해 구름이 스스로 빗겨 가면 단박에 태양을 보게 되니, 서둘거나 헐떡이며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나쁜 일, 좋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한결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닦아 나가되 안으로는 맑음과 고요함이 물결을 잠재운 바다같이 해야 합니다.

물결이 잦아든 바다에는 저절로 해인(海印)이 뚜렷하게 비치리니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간절함이 움직여 스스로 짓지 않은 가운데 지음이 있어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당시,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스님에게 제가 어떻게 깨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한해 겨울을 어느 산에서 움막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손발이 얼고,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 정도로 정진을 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그 산에 고사리를 꺾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낙네가 고사를 꺾어 스님 움막에 갖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낙네가 기다려 진 것입니다. 스님은 '내가 진정 이러고도 구도자인가' 라며 참괴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며 화두를 들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깨쳤다고 합니다. 깨친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로 간절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다해 단박에 열심히 불을 피워야 합니다. 쉬엄쉬엄 나무를 비벼서는 절대 불꽃을 얻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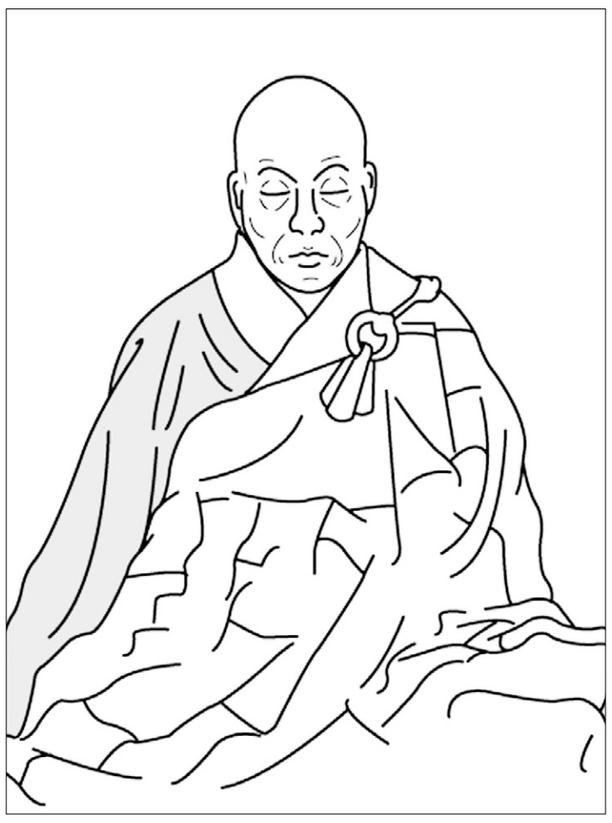
수처작주(數處作住)를 말을 남긴 인제 스님의 게송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是是非非都不關 (시시비비도부관)
山山水水任自閑 (산산수수임자한)
莫問西天安養國 (막문서천안양국)
白雲斷處有靑山 (백운단처유청산)

시시비비 내 알바 아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한가로운것을 서천의 극락세계 묻지 말게나 구름 걷히면 그대로 청산인 것을

부처 중생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유마경>의 말씀처럼 그 본심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음을 성취해야합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육조 혜능 대사

Q/A 선정과 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은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성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며,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나가게 되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면서 분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원망도 생기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자고 있을때는 몰랐지만, 잠에 깨어나면 모든 것에 흔들리고 헐떡이게 됩니다.

마음거울에는 큰 틀이 있고 받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불성은 티 없이 맑은 것인데, 눈으로 확인하니 갖고 싶어 시비가 생겨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한다. 선정과 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선정이 곧 지혜입니다. 참 선정은 곧 깨달음으로 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선정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정진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을 얻으려면 단박에 나무를 열심히 비벼야 합니다. 쉬엄쉬엄 나무를 비벼서는 불꽃을 얻지 못합니다.

조계종은 간화선을 주로 하다 보니,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들지 않으면 선지식한테 화두를 어떻게 들것인지에 대해 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에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 답합니다. 판자때기 이빨에서 털이난다는 말입니다. 화두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지만,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8만대장경을 요약해서 진술해 달라고 말입니다. 조주 스님은 '내가 지금 마시는 차의 맛도 한 마디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질타다운 질타라고 보여 집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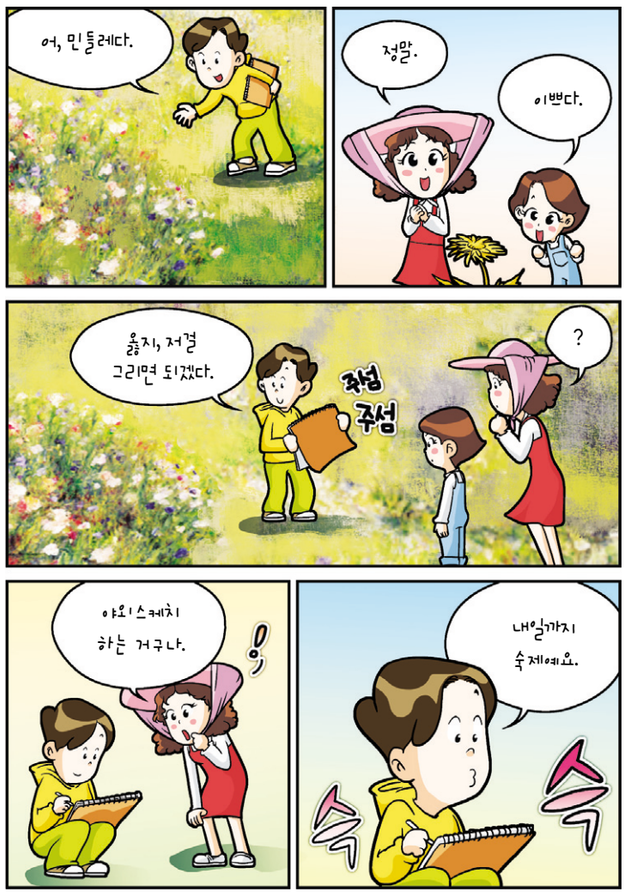
요절복통 여래네 집

#13. 야외스케치



스튜디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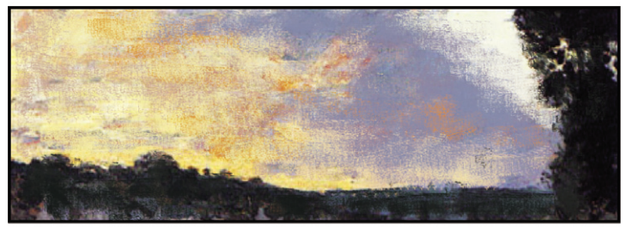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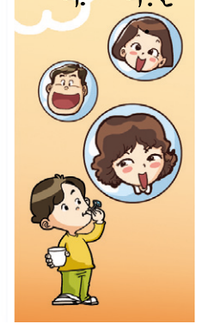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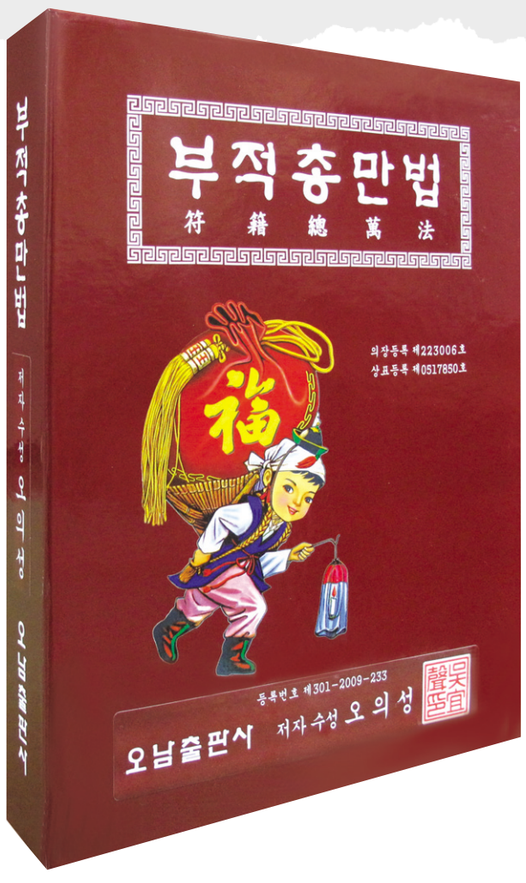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그릇된 죄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법구경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者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과거 · 현재 · 미래 어디에 점을 찍을까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마음치료 이야기'

우리는 늘 생각한다. 앉으나 서나, 일하거나 공부할 때 무엇을 하든 항상 생각을 한다.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인 까닭에 생각을 끊을 수 없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 4만8000가지 생각을 한다. 시간당 2000여 가지가 넘는 생각이 머릿 속에서 계속 박차고 올라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생각의 다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산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는 최근 펴낸 <마음 치료 이야기>에서 "마음의 병은 과거나 미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생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지 못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이 걱정될 때 우리 마음은 안정을 잃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빨간 불인 동안에는 서서 기다리는 자신이 불편하고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빨간 불이 켜진 동안이 좋으면 굳이 파란 불로 바뀌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며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고, 파란 불이 켜지면 파란 불이 켜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학생이 방학이 기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는 학기 중이 안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동안은 불행한 것이다.

전현수 박사는 "뭔가를 기다리지 않는 삶으로의 전환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현재 일어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현재를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얻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집착과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전공의 시절 전현수 박사는 불교를 만나고 수행하면서 불교가 환자들의 정신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 불교를 만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전 박사는 점점 공부에 심취해 2003년 한 달간 미얀마의 위빠사나 선원에서 단기출가를 한다. 급기야 2009년에는 1년간 병원 문을 닫고 수행과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 기간을 통해 전 박사는 명상, 특히 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 환자들의 정신치료에 큰 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전현수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위빠사나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전 박사가 이름붙인 불교적 치료법인 '세상의 이치'를 환자치료에 이용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됐다.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아팠던 여성,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고통 받고 있던 고등학생,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주부 등 여러 환자들은 위빠사나 명상과 전현수 박사가 말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병을 치유했다.



전현수 박사는 현재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한다. 사진은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일요참선법회 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신분석학계에는 수없이 많은 정신치료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방법이 생길 것이다. 어쩌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현재(순간) 집중을 통한 마음치료도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전현수 박사는 "이러한 방법이 불교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정신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 가 있는 곳이 있다'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자꾸 가면 그곳으로 길이 난다'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

때문에 이 책은 정신치료,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읽어야할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붓다에게 배운 마음치료 이야기 | 전현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8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법구경' 쉽게 읽자 정여 스님 펴내



부산지역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인 <법구경>을 쉽게 풀어써 책을 냈다.

스님은 <진리의 바다>에서 유기난의 한역본(漢譯本)을 있는 그대로 옮기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를 파자(破者)해 설명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정여 스님은 "<법구경>에 적혀있는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절정이자 지혜의 절정"이라며 "역자(譯者)마다 제각각으로 해석한 혼란을 바로 잡고, 청소년 불자들의 한자교재로서의 기능도 갖춤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교인재양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책에서는 스님이 직접그린 선화(禪畵)로 책갈피를 장식해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진리의 바다(한글로 읽는 한문 법구경) | 정여 지음 | 밝은 내일 | 1만8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불타 석가모니	법정	문학의 숲
4	인과경	현담	선
5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6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백금남	은행나무
7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8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	민족사
9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친/현현	불광출판사
10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참진리 · 온진리는 뭐?

진리는 무엇이고 참 진리는 무엇일까? 성인의 말씀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진리일까? 혹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다는 것이 진리일까?

저자 이온참은 <진리론>에서 이런 수많은 경우들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반면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어떤 대상이든, 우주의 탄생 이전부터 미래의 무한대까지 그 언제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어디든, 즉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관철되고 있는 이치를 참진리, 온진리라고 부른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쳐 온 과학자이자 교육자인 저자는 6년 전 불현 듯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티베트로 떠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티베트, 네팔, 지리산 등에 머물며 철학, 종교 사상과 관련된 서적들을 탐독하고, 그 명상을 통해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자신만의 사유체계를 완성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의 교리를 한 글자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사유체계는 불교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진리론 | 이온참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7000원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가야산 정진불

혜암 스님에게 '심성' 배워



하루하루 삶이 힘들 때 나 같은 범부들은 말한다.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지만 '출가'라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출가'라면 아마 이런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크고 어려운 일이 '출가'이다.

올해 입적 9주기를 맞는 혜암 큰스님의 생애가 정찬주 작가에 의해 소설로 되살아났다.

"공부하다 죽어라."

승가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으라는 가르침을 남긴 혜암 큰스님은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당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이셨다. 2001년 12월 31일 상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적에 드신 지 올해가 9주기다.

27세에 해인사로 출가한 혜암 큰스님은 방바닥에 눕지 않고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 한 끼만 먹는, 이른바 일종식(一種食)을 철저히 지킨 분이다. 혜암 큰스님은 출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장좌불와를 꼭 하리라 다짐하셨고, 평생 장좌불와 수행을 하셨다. 이처럼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도에 일생을 바친 분이다.

1998년 정찬주 작가가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쓰기 위해 해인사 퇴설당을 찾아갔을 때 혜암 스님으로부터 직접 "내 얘기를 소설로 한 번 써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이후 스님의 유훈을 간절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2년간 지리산 상무주암과 도솔암, 문수암을 비롯해 태백산의 동암과 남해 용문사와 염불암, 설악산 오세암 등 혜암 스님이 수행하면서 중창한 도량들을 부지런히 답사했다.

또 주변의 많은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 재가불자들을 취재하여 얻은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혜암 큰스님의 생애를 2권의 장편소설로 복원해낸 것이다. 실존했던 인물과 현재 살아있는 이들이 등장하는 실명소설인 셈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2010년 제23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설은 출간에 앞서 1년 1개월 동안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를 먼저 시작했다.

불교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극복하려는 의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같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심성을 혜암 스님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즈음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 년 중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때다. 화려한 축제 속에서도 한 젊은 청년의 출가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맞는 일은 공부하다 죽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가야산 정진불 | 정찬주 장편소설 | 랜덤하우스 | 1만2000원

강지숙

기획 PR

해동 조선불교율맥과 국제전수금강보살계에 대한 기고

6월 18일 봉행될 수승한 국제전수금강보살계에 앞서 한국 불교의 율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된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하여 글로써 전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율맥이 서역 인도에서 끊어지고 동토 중국에서도 끊어졌으며 해동조선에서도 끊어졌었는데 동토 중국고승 등은 서상수계를 하여 율맥을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하여 조선승려를 천민으로 전락케 하였으며 조선왕조시대의 천민으로서 8종류의 사천(私賤), 일명 8반사천(八般私賤)이 있었으니 1. 사노비(私奴婢) 2. 승려(僧侶) 3. 백정(白丁) 4.무당(巫堂) 5. 광대(廣大) 6. 상여군(喪輿軍) 7. 기생(妓生) 8. 공장(工匠) 등이다.

이렇게 조선 승려들이 천민으로 전락되었으니 율맥이 끊어졌음을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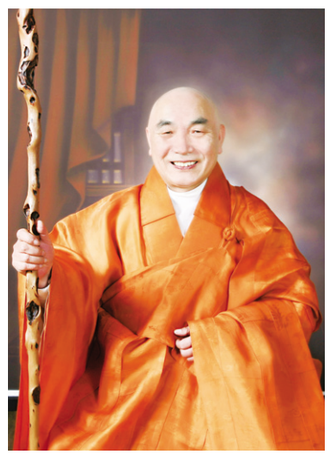
조선 제23대 순조 26년(1826) 7월 7일 경상도 하동 지리산 칠불암에서 조선불교 중흥율조가 일어났으니 금담장로님께서 그 제자 대은법사를 거느리고 조선율맥이 끊어짐을 탄식하면서 시아본사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서상수계를 하고자 7일간 서상수계 기원을 하던 중 시아본사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금담장로님의 제자인 대은법사에게 서상계를 내려주시니 조선불교중흥율 초조가 되시고 그 스승 금담장로가 그 제자를 스승님으로 하여 서상계를 이어 받으니 조선불교중흥율 제2조가 되시고 제3조 초의율사, 제4조 범해율사, 제5조 선곡율사이시고 조선불교중흥율 제5조 선곡율사에게서 구족계와 대승십중대계 48경계를 받으신 용성진종조사께서는 조선불교중흥율 제6조가 되시었다.

조선불교중흥율 제6조 용성진종조사의 율맥을 이은 해인사 주지와 대강백으로 지내신 제7조 봉암대희선사께서는 이번 국제전수금강보살계 금강계단에 전계아사리를 맡은 산승 태화 석가산에게 조선불교중흥율 제8조로 율맥을 전수하였으니은, 법, 율, 강을 용성조사로부터 전부 이어 받은 이는 아마 산승이 아니겠는가?

재가와 승가에 오계와 사미십계 비구250계 비구니348계와 보살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보살계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져온 범망경에 의한 10중 대계와 48경계가 설하여졌으나 근래에 위경으로 밝혀졌으며 승가와 재가 모두 동일한 계율에 따라 설해졌기에 재가자가 수지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조선불교중흥율 제6조 용성조사로부터 계율맥을 전수하신 제7조 봉암 율조로 연원된 금강계단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보살계율이 잘 구분되어져 재가자가 수지하기 원만하도록 설하여진 우바새경 수계품 중 6중계법과 28경계법의 보살계와 출지지경(出地持經)의한 출가 4바라이법과 돌길라법의 41계목은 최초 출가자에게 보살계를 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율장에 의한 장삼과 만의를 재가불자에게 최초로 전수하고 의규를 최초로 여법히 정리하여 전계한 것은 이번 수계식에 반영하는 가장 수승한 금강보살계인 것입니다.


대각교단 국제전수 금강보살계 전계아사리 조선불교중흥율 제8조 태화 석가산화남

불자여러분!

모든 불자들의 청정력을 높이고 국가의 만년대계와 구경에는 성불로 가는 수승하고도 귀중한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유훈으로 계를 스승으로(戒以爲師) 삼으라 하셨습니다.

또 계를 받아 지니는 자는 나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는 성인의 지위에 오르는 사다리요,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는 뗏목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 보살계를 받아 지니면 어두운 밤 불빛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음이요, 병든 이가 의사를 만남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얻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는 설사 앉아서 받고 서면서 파하더라도, 그 공덕은 한량없으며 이로 인하여 다생 업장이 소멸되고 복과 지혜가 증장하여 신행생활이 원만하고 신심이 돈독해지니, 비단 위에 수를 놓음과 같아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국운도 융창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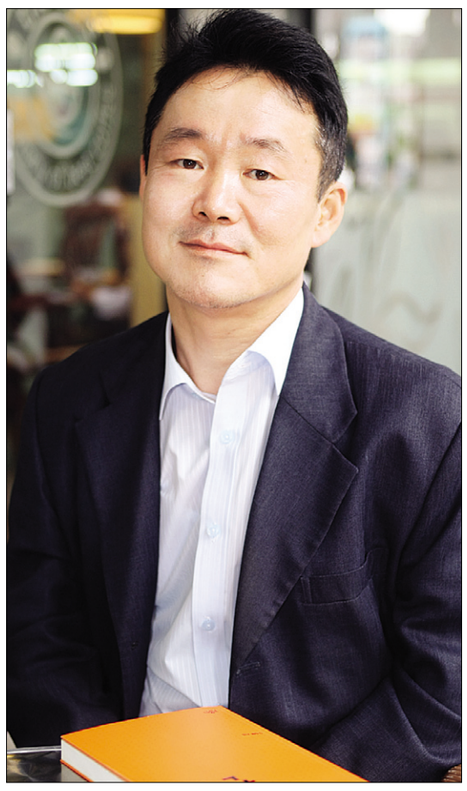
이번에 전수하는 금강보살계는 거룩하신 고승대덕을 증사로 모시고 봉행하는 만나기 어려운 수승한 법회이오니 수희 동참하여 무량공덕을 지으시고 불보살님의 가슴 벅찬 감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능인)는 오는 18일 대구 산격동 인터불고호텔 국제연회장에서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각국 최고 고승지도자들을 초빙하여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대법회는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와 11.3 광주학생 독립운동 학생대표 추모를 위한 (사)봉암변진설 기념사업회 주최로 봉행된다.

■저자 인터뷰

“부자될 업 쌓아야 부자 되죠”

금융가 우승택이 제안하는 ‘원각경’ 읽기



‘경제난’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요즘, 서점가에는 재테크 서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세간의 분위기 속에 종교관련 코너에서도 불자들의 시선을 끄는 책이 있으니 바로 <우승택의 생테크 – 날줄 원각경>이다. 2003년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금융가로서 금강경 해설서 <심상사성(心象事成) 금강경>을 출간해 화제를 모은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소장(사진). 그가 <금강경>에 이어 <원각경>을 들고 나타났다.

<원각경>은 부처님이 문수 · 보현 등 12보살들에게 관법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하는 경전이다. 수많은 투자 천재들의 투자 안내서가 많지만 우 소장은 돈 버는 지혜를 불교 경전에서 찾고 있었다.

기자와 만난 우 소장은 “<심상사성 금강경>을 읽은 한 스님이 ‘부자가 되려면 <금강경>이 아니라 <원각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왜 <원각경>일까? <원각경>을 읽으면 정말 부자가 되나?

8년간 <원각경>을 공부한 우 소장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 세상 어디도 부자 되는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다”며 “하지만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뚜렷하다.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 소장은 <원각경>에 나온 수행을 통해 마음을 보라고 말했다. 투자는 결국 ‘돈과 심리’이기 때문에 마음조차 모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느 사찰에서 기도 잘해 땅을 산다던지, 전문가나 용한 스님을 만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돈’이라는 강력한 원에 의해 쓰이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더 나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 씀의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 소장은 “모든 일에 답을 정하는 순간 그 답은 맞지 않게 된다.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지혜”라며 “<원각경>에는 이 과정이 수행일화로 잘 설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 소장이 쓴 <날줄 원각경>을 펼쳐보면 재테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원각경> 해설만이 쏟아진다.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믿으십니까? 팔아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연의 소치로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마음은 얼마나 믿을 만하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 소장은 “업이 욕망을 재료로 돈에 대한 갈망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이는 어떡해야 하나. 우 소장은 <날줄 원각경>의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업을 쌓을 것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재물’도 결국 신 · 구 · 의 삼업에서 오는 하나의 환(幻)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걸쳐 새 업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근검 · 절약해 남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부자 업”이라며 “돈이라는 놈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평소 경전 등을 통해 마음을 챙겨 깨어있다면 그 지혜가 경제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이 말하는 부자 업은 경전을 기반으로 한 인생 전체의 생테크였다.

우 소장은 “<원각경>으로 삶의 날줄을 세우고 생각의 씨줄을 실천에 옮길 때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원각을 드러낸다면 투자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날줄원각경 | 우승택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소장

한국외대, 서강대 대학원을 졸업 후 삼성증권에 들어간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소 소장은 2001년 9 · 11 테러로 주식시장이 붕괴돼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우 소장은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는 없어도 지혜가 있었다면 감을 잡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교 공부에 심취한다. 그리고 그 결실로 2003년에 <심상사성 금강경>이라는 금강경 해설서를 출간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우 소장은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호텔신라지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글로벌경영대학원 PB학과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2006년까지 ‘MBC 경제야 놀자’ 전문PB로 활동하며 재미있는 경제풀이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우 소장은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원각경, 금강경을 읽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더해가고 있다. 우 소장은 월간 <불광>에 ‘우승택의 행복 경제’를 연재하고 불교TV ‘우승택의 유식으로 하는 투자클리닉’, ‘금강경 강의’ 등을 진행하는 등 불교계 경제 강연에도 나서고 있다. 저서로는 <심상사성 금강경>과 <사랑하면 보인다, 우승택 투자>가 있다.

400년 전 그날, 사명 대사의 활약상 담아

<사명대사 일본탐정기>는 민족이 위기에 처한 시절 한 스님의 구국행을 담은 이야기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 이후 1604년부터 1605년까지 사명 대사의 행보를 따라간다. 저자 박준규는 5년간 일본과 한국의 흩어진 사료를 분석해 역사적 고증과 함께 사명 대사의 활약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임진왜란 이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다.

“왜란으로 덕을 본 나라가 없었다. 모두가 패전국이었다. 조선은 재침으로 노심초사했으며 대마도는 식량난에 부딪혔고, 일본 측은 통교의 필요성이 있었다. 일본의 요청에 조선은 일본으로 건너가 정세를 살피고, 교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할 대신이 없었다. 바로 이때 유일한 인물이 사명 대사, 유정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 대사. 스님은 일본에 사절(탐정사)로 건너가 화평조약을 맺었으며 전쟁 포로 3000 여 명의 송환을 이뤄낸다.

“세상이 병들지 않으면 내 몸의 병도 사라지는 법이야”(67p)

역사책에는 짧게 정리되지만 400년을 거슬러 현 시국에서 다시 찾은 사명 대사는 후손들이 깊고 분명하게 새겨야 할 위인임에 틀림없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간에 뛰어든 스님의 삶은 남북 경색 국면을 맞은 지금, 민족의 평화를 위한 대화협력에 불교계가 더욱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명대사 일본탐정기 | 박덕규 지음 | 랜덤하우스 펴냄 | 1만2000원

노덕현 기자

5만리 구법여행 따라

경전을 구하기 위해 7세기 중국에서 부처님이 탄생한 서역으로 떠났던 현장 스님. 책은 소설 <서유기> 속 삼장법사의 모델이자 동아시아 불교를 꽃피운 현장 스님의 5만리 여행길을 따라가며 그의 삶과 깨달음, 업적을 설명한 전기다.

서양 여성으로 처음으로 현장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등지를 여행했던 저자는 책에서 그를 용감한 모험가이자 불경 번역가 등으로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불교와 불교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영미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 모험담을 이야기 하듯 풀어냈다. 구법 여행은 <대당서역기>를 중심으로 생애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혜립 스님의 <자은전>을 바탕으로 엮었다.

현장 법사 | 셀리 하비 리긴스 지음, 신소연 · 김민구 엮음 | 민음사 펴냄 | 2만3000원

노덕현 기자

■ 문화 소식통

갤러리 · 북카페 사찰로 쏘옥~

광주 무각사 문화관 개원



도심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광주 무각사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무각사가 갤러리와 북카페 등을 갖춘 무각사 문화관을 열고, 도심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개원한 무각사 문화관의 '로터스 갤러리'는 연중 2-3회 유명 작가들의 초대전을 열고, 지역의 젊은 작가나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해 무료로 대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갤러리 개관 기념전으로 프랑스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원로화가 방혜자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또 문화관 1층에는 국내외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을 갖춘 서점을 겸한 북카페도 열었으며, 특히 문화관 2, 3층에는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공간을 조성해, 사찰요리 특강과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찰 요리로 유명한 대안 스님의 특별강좌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며, 사찰음식 교실은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재활용장터 보물섬'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열리고 있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광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준비했다”며 “이웃과 더불어 숨 쉬고 이웃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진정한 시민의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무각사는 1997년 택지개발로 민간 사찰로 전환된 뒤 광주시 소유로 송광사에서 운영해오다, 5월 27일 송광사 말사로 최종 등록됐다.

노덕현 기자

남종진 작가의 관음보살도 개인전이 6월 13일까지 서울 길상사 옆 한국서예관에서 열린다. (02)741~8881

탁인아 작가의 모형동물 사진전 Plastic eye가 6월 9~15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5관에서 열린다. (02)736-1020

지혜로운여성 웰다잉 문화제가 6월 22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02)722-2101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시전을 6월 13일까지 연장개최한다. (02)2011-1960

플리처상 사진전이 6월 21~29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02)2000-6330

불교팝아티스트 김영수 작가의 ‘황금당나귀’. 캔버스 위에 뻥튀기를 놓고 순금으로 덧씌웠다. ‘뻥(거짓)’으로 공(空) 등 불교적 가치관을 표현했다.

김영수 작가의 불교팝아트전 ‘거짓말’이 6월 20일까지 대구 DM갤러리에서 열린다. (053)254-323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62 65,000원



JD121-1 (6.4mm) 68,2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있습니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최연의 산 이야기 <14> 가야산 6

넉넉한 백제의 미소가 가야산 자락에 가득하구나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서산 마애삼존불. 자연석에 돋을새김을 했다.

보원사지로 들어가는 강당골 초입의 개울 건너 높직한 바위에는 흔히들 '백제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꾸밈없는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양각되어 있다.

그런데 강당골은 가야산의 북쪽 산줄기에 기대고 있는 충청도에서는 꽤나 외진 곳인데 하필이면 이런 궁벽한 곳에 부처님을 모셔 놓았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에 대한 이해와 6세기 말의 백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은 수도 위례성이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어 낙랑과 말갈의 침입을 자주 받기 때문에 한강 이남인 한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이후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3만의 군대로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백제의 개로왕은 아차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태자 문주가 고구려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산세가 험한 웅진(공주)까지 물러나서 도읍을 정했다. 그 후 성왕 대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자 그동안 고구려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웅진성이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도읍을 옮겨 백제의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교통이 용이하고 평야지대가 펼쳐 있는 사비성(부여)으로 천도하였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한성백제시대에는 고구려와도 사이가 좋아서 육로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였는데, 한강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웅진까지 남하하여 도읍을 정하고 그 뒤로도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됨으로 더 이상 육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과의 새로운 교역로로 바닷길을 모색하였다. 중국의 산동반도와 가장 가까운 당진, 태안지역이 교역항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웅진이나 사비로부터 당진과 태안에 이르는 길은 예산의 가야산 길로 서산을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즉, 수도와 교역항을 잇는 길은 지형적으로 가야산자락을 거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가야산 주변의 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주에서 서북편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다가 고을과 큰 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는데, 곧 서해가 쑥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 또 큰 개(浦) 하나가 있다. 개는 유궁진(由宮津)이라 하며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은 오서산(烏棲山)이 막아 다만 산 동남편으로 공주와 통할 뿐인데 오서산은 가야산에서 온 산맥이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함께 내포(內浦)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병자년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해서 중국과의 교역로의 길목에는 바다 길을 오고갈 상인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을 모셨을 것이다. 그 결과로 서산의 마애삼존불과 태안의 마애삼존불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본존이 석가여래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무외 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다. 왼쪽엔 관음보살이 입상(立像)으로 연꽃 대좌에 서 있고, 오른쪽엔 미륵보살이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으로 앉아 있다. 이러한 반가사유상은 7세기 초 삼국에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신앙형태로서 마애삼존불의 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일반적인 삼존불과는 달리 본존불이 좌우 협시보살보다 작다. 확실하게 세 분의 명칭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왼쪽이 수인으로 봐서 석가여래이고 본존불이 관음보살이고 오른쪽이 왼손에 둥근 합을 들고 있어 역사여래로 추정하고 있다. 마모가 심하여 상호의 표정을 느낄 수 없고 무릎 아래는 흙에 묻혀 있는 상태다. 조성 년대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비슷한 시기인 7세기 무렵으로 보이나 형태가 단순하고 조각수법이 소박하고 삼존불이 교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점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서산 마애불보다 앞선 시기에 모셔진 백제 최초의 마애삼존불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가는 봄이 고요하다

초록 세상으로 비가 내린다. 어두워진 만큼 무거워진 하늘이 제 무게를 어찌하지 못하고 내려앉는다. 푸르름으로 뒤덮인 세상의 꽃들도 피어나던 웃음을 지우고 땅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땅으로 떨어져 스며드는 물방울 소리가 방안까지 밀려든다. 축축하다. 방도 방안의 나도 비에 젖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세상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촤촤촤촤촤촤촤, 나뭇잎들이 비를 맞는 소리. 솨솨솨솨 솨솨솨솨, 빗방울이 땅에 내리는 소리.

소리는 들려오건만 조용하다. 빗소리 가득한 세상으로 흐르는 고요의 강에서 가만히 자라나는 것들을 본다. 푸르름으로 가려진 곳에서 푸르름을 먹으며 꿈틀거리는, 생명들의 푸르름을 바라본다. 드러나지 않게 무섭게 자라나는 푸르름. 처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낙숫물소리도 몸을 움츠렸다.

창밖의 비가 주춤거리며 성긴 틈새를 내보인다. 내려앉은 하늘이 무거움을 떨어내려는 듯 땅으로 어둠의 조각들을 내려놓는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끄덕' 고개를 숙였다 다시 일으키는 나뭇잎의 인사를 받으며 나는 잠시 즐겁다. 나무 밑의 풀도 잎을 숙였다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 몸을 숙여 빗방울의 무게를 땅으로 내려놓는 동작으로 나뭇잎과 풀들은 빗속의 삶을 이어나간다.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묵묵히 맞으며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문득, 방바닥을 기어가는 검은 물체가 눈에 스친다. 쥐눈이콩만한 거미다. 검은 빛이 빛나는 것이 아직 어린 티가 역력하다. 장판이 깔린 바닥이 미끄러운지 박박박박 제자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 겨우 벗어나 다시 기다가 또 다시 바바바박,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인다. 그러다 또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쉼 없이 움직인다.

그래도 세상은 고요하다.
왜 이리 조용할까?
바람도 세상의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

장난기가 동한 내가 발을 들어, 나아가는 거미의 앞길을 막았다. 거미는 사태를 파악하는 듯, 몸을 세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얘, 밖으로 내보낼까?"

"어디, 뭔데요? 으응, 거미구나. 장롱 밑으로 몰아넣으세요. 벌레들 잡아먹게."

아내의 말을 따르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미의 앞을 막아 장롱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다.

"아, 잠깐만 아빠."

아들이 내 발을 밀며 엎드리더니 집게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탱' 튕기며 거미를 쳐서 장롱 밑으로 사라지게 했다.

"너무 세게 친 것 아니냐?"

아들은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장롱 밑에선 아무런 기척도 없다. 먼지가 쌓여있을 장롱 밑으로 튕겨진 몸을 추스르며 정신을 수습해 사방을 둘러보는 거미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 했지만 한참을 바라보아도 다시 보이진 않았다.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다시 눕는다. 나도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비에 젖은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아내와 아들과 나 그리고 거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도 아무런 소리를 얻지 못했다.

잠시 전과는 다르게 빗방울이 사선으로 내린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나뭇잎이 몸을 뒤집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세상은 고요하다. 왜 이리 조용할까? 바람도 세상의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도랑 옆으로 오가던 길이 자라난 풀들로 덮여 흔적조차 희미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마당가의 나무들이 앞산을 가로막으며 섰다. 이제 내일이 곧 여름이다.

푸른 것이 푸른 것을 가리며, 가려진 푸르름이 가린 푸르름을 헤치며 푸릇푸릇 자란다. 서로 다투며 자라나는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한가?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87호 2010년 6월 9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각종의식
범음범패, 바라작법
010-2290-9270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염불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보살, 사찰 운영자
및 포교당 운영자
011-716-3811

남녀 이성문제,
건강불치병,
정신질환,
자녀시험문제,
사업재수. 상담요
▷대성암
010-5446-8846

출가자(비구니, 행자)구함
본 도량은 육지장보살을 모신
바른 지장기도도량으로써
비구니 스님 및 행자를 구합니다
· 자 격 : 20~30대, 학력, 지역 관계 없음
· 수행 후 주지 임명
(수행중 승려증 발급, 독자운영)
· 출가 하실분만 전화바랍니다.
(장난전화 절대사절)
010-2599-6020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으로
회향을 하실 때까지 가족으로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거제
010-7593-235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 포교당
02)338-2158

역학을 배우면서
가족같이 지내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전남, 34-40세 미만
010-6536-0120

49재, 천도재 등에
불러 주시면 영산작법
인 바라춤과 나비춤,
범패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1)571-1112
010-5370-0888

50세이하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55)375-0142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님도 모십니다
▷부산
011-830-9540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사찰에서
달마 그리실
스님 모십니다.
부전스님도
모십니다.
▷대구
010-2982-3492

수행정진하실
예비 女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010-9409-5001
011-9762-3672

경험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경기 용문
010-8922-11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광주 퇴촌
031)765-0440

부전스님
모십니다
▷시흥, 50세미만
011-314-9848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도서지역)
법납 10년이상,
50세 미만 권속있는스님
및비구니스님
꼭필요한스님만 전화하세요
011-663-4893

부전스님(비구,
비구니)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대덕사
010-9219-7695

산 좋고 아담한 복두산 관음사에서
열심히 수행과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형제처럼 의지하고 함께 지내실 분.
한가지 특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상좌스님도 모십니다.
▷경북 의성
010-9092-9972
054)832-9972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황포돗대에
동승할
보살
▷대구 팔공산
010-8861-17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 경남 창원시내
011-879-25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성남
011-212-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속초
033)633-2920

대방등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종무원(女) 및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 종무원은 엑셀, 회계, 신도관리 가능하면 됩니다.
▶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 숙식제공합니다.
1) 대우는 초보자외는 월급 기본 100부터
2) 실력이 있으신 분은 월급 120부터
3) 특별수당 호봉수에 따라 급여 인상됩니다.
4) 나머지 내용은 면담 후 절충 요망 합니다.
5) 휴가는 2~3일 입니다.
서 울 011-707-5552

卍 가족처럼 편안한 안식처 卍
부 모 사 랑 요 양 원
대표 박종학 불자
▷ 대상 : 1,2,3 등급자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스님
▷ 후원계좌 : 농협 173351-52-094272 (천원부터) 예금주 : 박종학
☎ 043)537-0277代 043)535-0277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60번지 (사업동반자 환영함)

대 체 의 학 비 법 전 수
1. 중풍환자 혀가 삣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평 생 사 업
(1백5만원)투자 년수입 1,500~2,000만원 가정에서 직장다니며 누구나 평생 드리오니 스님, 불자님
수희 동참하시어 부처님 도량, 장엄불사하시고 가난한 중생구제 하옵시고 무량공덕 지으소서.
!! 당 뇨 희 소 식 !!
깊은산 귀한 나무뿌리 40년 당뇨 정상수치됨. 1근 2만원. 효과없을 시 100% 환불
작은 사찰에서 같이 불사하시며 평생 같이 지내실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자비의 몸을 갖추신 불보살님을 모십니다.
해동사문 서봉 합장 행복을 드리는 전화 010-2414-4984
깨친자는 성불하고 눈 밝은자는 황금이 보인다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불 관음사
● 법 명 : 연주(구곡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88-7
위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호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법하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기치유란 무엇인가?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단체에서 기치료 또는 기공치료라는 명목하에 마사지 교정 등의 수기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순수한 에너지요법으로서의 기치유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11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기치유 연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방법을 배워서 기치유가 가정의학적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87 | 기치유 양성반 개강!
개강일자 2010년 6월 12일(토) 오후 2 : 00 ~ 4 : 20
수련기간 11주 과정(주1회)
수련지도 윤한흥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
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문 의 교대역 4번 출구(서초동 단우빌딩 3층 윤기치유명상수련원)
기치유센터 교대 센터(본원) : 02-3482-5032, 5065
대구센터 : 053-652-2202 / 분당센터 : 031-782-4881
기치유상담 기력쇠진, 기순환 장애, 수술 후유증, 원인 모를 병증 상기증 등 치유 기를 받고 싶으신 분은 기치유 센터로 문의하세요.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gihealing.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
- 법당 및 요사 : 6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2억 3천

- 위치 : 충북 마산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부지 : 33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토굴 도량터

- 저희 대력불사는 스님 및 수행자를 위하여 전국의 좋은 수행처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불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지역 · 원하시는 사찰 · 원하시는 토굴 · 원하시는 도량터 이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대 가람터
- 총 평수 : 8만 6천평
- 4만여평 평지, 1만평 (약초재배)
- 위치: 진주, 단성 근처
- 산세 및 주변풍광 최고, 계곡물 철철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수도권
- 부지 : 28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경북 봉화군 봉화읍
- 대지 군유지, 주차장 350(전)
- 법당 17평(단청), 산신각
- 요사 30평,
  태양열, 심야보일러, 지하수
- 가액: 6천 3백만원(절충가능)

010-6784-3345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 대지: 86평 ● 시설완벽
- 법당 약 15평,
  거실, 방3, 욕실, 부엌
- 가액: 5천만원

017-504-6565

최고의 명승 사찰터

-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서울에서 2시간 거리)
- 평수 :31,500평(임야20,600평, 전10,900평)/ 3억2천만원(평당10,000원)
- 풍기 IC에서 7분거리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계곡이 본 부지앞으로 흐르고 있음
- 토종 산림이 울창하며 임야 곳곳에 샘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약수가 솟아남
- 테라피한방공원조성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치가 우수하며 최적의 등산로 코스
- 봉현 한천은 예로부터 물이 차고 깨끗하며 명명되어 온 지역이며, 본 부지 터는 예로부터 명승 사찰로부지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토지임.
- 소백산 비로봉, 옥녀봉 등 등산로 입구까지 10~ 20분 소요
- 풍기온천까지 10분 소요
- 용도 : 사찰부지, 휴양지, 펜션, 수련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010-2037-728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040-3588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5800-321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 1층 허가된 주차장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주차장 완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55)632-3840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입구
- 4층건물 중 3층, 6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010-9773-9980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 전철역에서 도보 5분, 천고사거리 위치
- 3층건물 중 2층
- 약 40평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욕실)
- 980만원(보증금+시설비) 월 40만원

010-5154-701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80평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법당 30평, 2층 요사 40평 1층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 종각 약 1평
-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 가액: 4억 5천만원(조정가능)

010-3112-3513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 모란시장 뒤
- (공설운동장 후문)
- 전철 8호선
- 법당 40평, 방2
- 주차 다량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70-7717-9303
011-857-3775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북 제천 시내
- 평수 25평, 법당 10평, 큰방 1, 주방 거실 大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840-688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 이상
-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 주차가능
-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임야 사찰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 여수에서 돌산까지 20분거리
- 대지 총 250평, 대웅전 1, 2층건물 1
- 요사채 1동
- 가액: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황영산 자락
- 대지 130평 , 법당, 주지실, 대중방
- 공양간, 산신각, 기타 시설 일체
- 전세 5000만원(시설비 포함)
-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871-15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서산동 453번지, 서답시장 내
- 창원불교사 2층 44평
- 내부 목재, 기와로 꾸며짐
- 시설 최고 A급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256-6488
010-5384-6797
010-4576-0476

사찰터 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부지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교원운영하실 분

- 위치 : 경남 마산시 산호동 1층
- 법당 1칸, 방2칸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300만원 , 시설완비 에어컨, 냉장고, 삼존불, 탱화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605-01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5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사림동
- 평수 50평
- 모든시설 완벽 (신설2개월, A급)합니다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3천 5백만원 (시설+전세) 월 6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양도

010-6436-807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바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지리산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4784-550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 법당1, 방1, 부엌 겸 거실, 화장실
- 보증금 2,200만원, 월 20만원
- 비구니 스님 환영합니다

010-5470-1892

물 맑은 토굴터

- 위치 : 경남 합천읍 용계리 950외 3필지
- 평수: 약 800평, 전 관리지역
- 포장 임도접하고 토곡산 7부능선
- 확 트인 전망과 수려한 경관
- 청정계곡 수량 4계절 풍부함
- 가액: 평당 5만원 상담

010-9367-101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부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1217
- 면적: 계획관리지역 725 평, 전
- 도로 접하고 위치, 향 최적
- 인근 대규모 공원묘원 2곳
- 토목완료
- 평당 15만원, 가격상담

010-3128-5773

아담한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성주읍 대황리 970-2
- 면적 대지 약 80평
- 법당 14평, 요사 5평
- 성주 읍내 5분거리
- 아담한 사찰
- 가액: 합 3500만원

010-6790-1080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사찰안내

- 비구니 스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중심, 대지 67평
- 건평 35평, 큰방 2개, 작은방 2, 화장실 2
- 집안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1억 4천 3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 대지 5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 25평
- 3층 옥상 삼성각
- 아파트, 재래시장, 여성복지관 인접
- 교통편리. 법단 원목시설
- 가액 : 4억 1천만원

010-8941-148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1억

017-572-3714/011-419-3714
051)556-9530 (야간)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시설완벽, 교환가능● 대지 1만 1천평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도심속의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부근
- 평수 140평, 법당 60평, 모든시설완벽
- 방사두칸,공양간,종무소,기타등등 부산시내에서최고의 위치와시설을갖춘 법당으로불교학교 개설되어있음
- 현재 법회진행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직접 보시고 상담 후 결정
  보증금 2억 (최소한 5천~7천의 보증금으로 월세 가능

010-3868-743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 재래시장 부근
- 평수: 54평, 4층건물 중 3층
- 법당 약 25평, 방 4칸 (불교대운영장소)
- 아미타, 관음, 약사, 지장 부처님, 소불, 인등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관리비 無)
- 시설 및 집기 일체 상담 후 결정
- 장소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055)372-3315
010-2553-8827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2억 5천만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관광단지 입구, 대로변 옆
- 평수: 대지(종교부지) 600여평(실평수 700여평)뒷밭경작
- 법당 25평, 삼존불, 지장, 약사, 신중, 영단, 칠성각, 산신각
- 각단후불탱화, CCTV설치, 불사완벽, 모든 비품집기일체
- 요사채(65평, 후원 2곳) 심야보일러(온수평펑)
- 외부: 석탑, 용궁, 꽃동산, 화장실, 사찰내주차가능, IC에서 10분
- 특징: 산수화려한 산밑에 위치(소나무 50년이상)고속, 국도위치
- 가액: 3억 8천 5백(유동가격 평당. 대지 50만원이상)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21 오십견

'오십견' 50대만 발생되지 않아

오십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50세쯤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해,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어깨근육통을 일컬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식 의학 용어나 병명이 아닌 일반인들이 손쉽게 부르다 하나의 고유명사화가 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차 약화되고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이 닳아 연부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깨의 운동 장애 및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깨관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는다는 의미에서 '동결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오십견은 나이가 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깨 자체의 근육이 굳어져 상체의 운동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깨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어깨가 급격히 약화돼 30~40대에도 오십견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면 2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깨 주위의 심각한 결림이고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깨 운동의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수면시간 동안 심한 결림이 올 수 있는데 이는 서 있을 때는 어깨뼈가 밑으로 쳐지지만 누웠을 때는 견봉과 어깨뼈가 맞닿아 결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어깨부터 팔 뒤꿈치까지 쑤시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도 오십견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오십견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어깨의 불편함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 정도로 악화돼 진통제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도 오십견이 많기 때문에 가사 활동이나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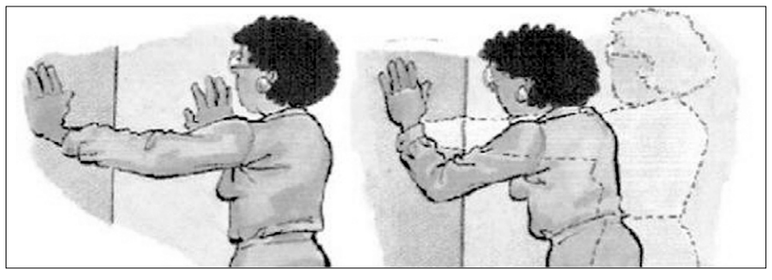
오십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운동장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팔을 뒤로 돌려 올리는 동작부터 굳어지고 다음은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마지막은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어깨운동 장애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의 퇴행증상부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깨 부위에서 어느 날 작게 시작되는 가벼운 결림이 있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봐야하고 초기의 근본적인 교정이 오십견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이 필자의 체형교정 센터에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빗질은 물론 옷을 입기도 불편하고 특히 밤에 어깨가 쑤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오십견을 진단 받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어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을 다니며, 어느 정도 심각한 어깨 결림에서는 벗어났지만 병원을 가지 않으면 또 다시 어깨결림이 재발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깨뿐만 아니라 목과 등에도 불균형이 심각해서 전체적인 체형교정을 시작 했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6개월 동안 주 2~3회씩 1시간 가량 1:1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맞춤 체형교정과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가뿐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오십견은 초기부터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단순한 어깨결림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심하고 디테일한 1:1 교정과 몸의 전체적인 교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오십견의 어깨의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
팔굽혀펴기 자세로 벽을 향하여 선다.
허리를 바르게 하고 몸을 천천히 벽 쪽으로 향하게 한다.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하루에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9 아토피

면역력 높이고 열 내려야

선천적으로 가려움을 잘 느끼는 피부를 갖고 있어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긁게 되면 습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를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한다. 팔꿈치, 목, 무릎, 얼굴, 발, 사타구니, 항문 주변부와 같이 피부가 주름지고 항상 습기에 차기 쉬운 부분이 붉어지면서 가려움이 생긴다. 아울러 가려운 부위가 건조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무의식적으로 자주 긁게 된다. 아울러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 부족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기도 한다.

이 질환은 어린이들에게 태열(胎熱)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어린이의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 1개월~1살 영아에서 시작해 3살때 쯤이면 가라앉으나 10세 이후 다시 발생해 사춘기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피부의 주름진 부분에 가려움이 생기며 작은 수포가 생겨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지고 갈라지기도 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대부분 유전적인 관계가 많고 면역계통의 기능 저하, 여러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심한 스트레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물, 자신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나 로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의복을 몸에 꽉 조이게 착용해 발한이 억제되고 피부호흡이 나빠지거나, 습기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매우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증세는 심해진다.

피부표면이 건조해지면 피부가 탄력성을 잃고 쉽게 자극을 받아 여러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날씨가 추운 경우 가습기 등을 이용해 습도를 적절히 맞추고, 목욕 시에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자극성이 강한 비누의 사용과 때수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염증이 일어난 부위에는 비누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물기를 대강 닦고 보습제를 발라 물기가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발한도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합성섬유로 된 의복은 피하고 땀을 잘 흡수할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면으로 된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면역능력을 저하시키므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긁어서 생기는 상처는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막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가려움을 잘 참지 못하고 심하게 긁으면 습진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손톱을 짧게 깎아 주고, 잠이 들 때에는 장갑을 끼워주는 것이 좋다. 상처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면 냉찜질을 해야 한다. 냉찜질은 가려움을 감소시키고 껍질도 완전히 벗겨지게 한다.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 지시에 따른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적인 치료는 면역력 강화, 체질 개선, 피부의 열을 제거하고, 보혈(補血)해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황백(黃栢) 등과 같은 외용약과 아울러 환부에 침을 놓고 사기(邪氣)를 제거하는 부항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여름에 심한 풍열성(風熱性)에는 소풍산을, 겨울에 심한 풍한성(風寒性)에는 계지탕을, 여성의 경우에는 소요산 계통을, 허약한 이에게는 팔진탕을 주로 쓰면서 체질적인 차이에 따른 보완에 중점을 둔다. 변비가 심하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 지는 사람에게는 보혈을 목표로 당귀(當歸)를 차로 오래 쓰기도 하고, 피부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율무를 쓰는 경우도 많다. 율무는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굳어지거나 주부습진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쌀에 율무를 섞어 밥을 지어 먹거나, 율무를 볶아서 보리차 같이 오래 먹는 것도 좋다.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는 부위에는 무, 생강, 감, 녹두즙 등을 상처에 문지르거나 올려 놓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자극성이 있는 음식이나 물질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21 당랑권

신속히 사냥하는 사마귀의 모습

현재 30~40대의 연령층이 기억하는 영화는 무술영화가 많습니다. 그 영화에는 악역이든 주역이든 등장인물이 지닌 권법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던 무술이 '당랑권' 이었습니다. 당랑(堂郞)은 '사마귀 당'과 '사마귀 랑'으로서 한마디로 사마귀란 이야기입니다.

당랑권의 계기는 소림권 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랑권은 청나라(1644-1911) 초기, 산동성 묵현(墨縣)의 권사, 왕랑(王朗)에 의해 발생됐습니다.

왕랑은 어려서 무공을 좋아해 각지를 떠돌며 무공을 익혔습니다. 자신의 무술을 시험하기 위해 숭산 소림사를 방문해 대결을 청했고, 승려와 몇 번이나 시합을 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의에 빠져 들판에 누워있는데 사마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매미를 간단히 잡는 모습을 보고 당랑수법을 만들어내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원숭이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참고해서 원후보법을 만들어, 당랑수법과 통합해 당랑권의 기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만든 당랑권으로 다시 소림사 승려와 겨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당랑권의 계기가 된 사마귀의 앞발.

일설에는 그 뒤, 여행 도중에 알게 된 권법 중에서 우수했던 북파의 17가지 문파무술을 집대성하고 통합해 완성한 것이 당랑권이라고 하는데, 왕랑이 차입한 17가지 문차무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조장권(太祖長拳) △통배권(通背拳) △전봉(纏封) △단권(短拳) △단타(短打) △후권 △ 고신(身) △ 면장비질(面掌飛疾) △솔랍경붕(硬崩) △구루채수(勾採手) △곤루관이(滾漏貫耳) △점나질법(占拏跌法) △앙무각(鴦脚) △칠세련권(七勢連拳) △와리부추(窩裏剖) △곤채직입(棍採直入) △개수통권(手通拳)

위와 같은 당랑권의 역사와 그가 인용했다는 17가지 문파무술에 대해 일면에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17문파의 무술을 인용했느냐? 왕랑이 모두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술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그 활동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문파들은 자신의 비전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므로 17문파의 무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대련을 해 보면 상대의 기술이 금방 드러나게 되며, 하수는 모르고 지나치더라도 고수는 상대의 기술을 금세 알아버립니다. 그러니 왕랑이 다른 문파의 무술을 섭렵하지 않았다는 말도 일리가 없습니다.

각 문파의 비전은 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공의 전수 부분입니다. 권법은 어느 한사람에게만 전수했다 해도, 그가 몰래 배우고 평생 써 먹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공은 일시적으로 눈과 몸으로 배워서 습득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전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당랑권은 그 실전력이 우수하게 인정되어 여러 문파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원류인 매화 당랑권을 비롯해서 비문 당랑권, 팔보 당랑권, 육합 당랑권, 소림 당랑권, 칠성 당랑권 등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불자정보 78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 자 안 내
● 위치: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 임야: 10,834㎡
● 건물 50평(기와집), 산신각
● 가액: 3억 5천만원
010-5201-833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목 4동
● 3층 건물중 3층 40평
● 4층 옥상(창고) 전체사용
● 방2(침방,친견방),공양간,해우소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보살,천수천안
● 치성광여래,산신원불, 해당 각각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및 집기 최상급 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및 일체 6,000만원- 절충가능
010-3342-4115

절터안내(대지)
● 위치 : 경주에서 20분거리 울산에서 30분거리
● 경주의 최고의 대 명당, 대 길지
● 마음대로 건축가능, 대지 267평
● 투자가치 최고 " 확실"
● 사찰용도 평당 50만원 보시
● 일반 주거용 평당 60만원
010-332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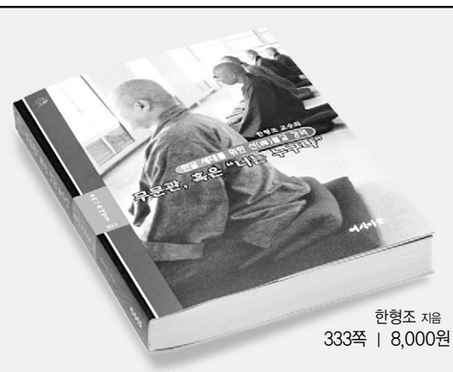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 법당, 산신, 용왕
● 공양간 아주 큼, 교통편리,
● 주차장 넓음
● 가액은 상담 후 조절
011-595-1522
052)295-377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 위치 A급
● 4층건물에 2층, 43평
● 법당, 아미타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 후불탱화
● 방2개, 공양간 별도, 목욕탕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 8백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494-9713
032)666-0424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시 수정동
● 요사채 방 2
● 기도방 1, 관음전
● 여수 오동도 옆 바다가 한눈에
● 가액: 3천 5백만원
061)662-5580
011-676-5367

포교원안내
● 위치: 경산시내 대도로변에있음
● 상가건물내에 법당주불은 관세음보살.산신.칠성탱화.
● 방1개 주방 욕실 화장실
● 시설비4백만원. 보증금3백만원 월세 이십오만원(250,000원)
010-3780-618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요지의 명당, 발전성 최고
● 가액: 시설비 포함 9천 5백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7325-1259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자전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 환영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대출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고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16 차의 대중화

아침의 음주관습을 바꾸다

차가 처음 유럽에 전래될 당시 영국은 아침식사부터 술을 마시는 것이 관습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영국 가정에서는 하루 1인당 3리터의 술을 마셨다. 음주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교도적인 이데올로기와 함께 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음료의 출현이 필요했다. 때마침 초콜릿, 커피, 차와 같은 기호품이 멕시코, 아라비아, 중국에서 전래됐다. 이러한 기호품은 유럽의 전통적인 식문화(食文化)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각국에서는 낯선 동양의 음료인 차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차 수입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나라는 독일이었다. 예수회 소속 선교사는 중국인들의 깡마른 얼굴은 바로 차를 마시는 것 때문이라며 차를 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의사들이 차의 효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성스러운 허브'라고 찬양한 의사도 있었고, 통풍(痛風)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자는 의사도 있었고, 무조건 차를 반대하는 의사도 있었다.



웨지우드사 제작. 크림웨어 다기세트 일부.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다관 높이 24.4cm.

반면 네덜란드 의사 니콜라스 털프(Nicholas Tulp)는 이국적인 음료인 차를 열렬히 옹호했다. 그는 <의학론>에서 '차는 장수음료이며, 육체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차와 비교할 수 없다'며 극찬했다. 영국에서는 차에 대한 반대론보다는 왕실의 음료로, 알코올음료의 대체음료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수용됐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왕실과 상류층의 아침식사 메뉴였던 고기와 술은 차 혹은 커피와 함께 먹는 빵으로 점차 바뀌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자 중산층 가정의 아침식탁에도 술 대신 차가 자리를 메웠다. 차가 점차 영국인의 일상음료로 자리를 잡아갔지만 차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는 차의 밀수를 성행하게 만들었고 '영국산' 가짜 차도 등장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직수입하고 또한 관세를 인하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서민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차의 수요는 더욱 증가해 관세인하만으로는 찻값을 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영국인들은 자국영토 안에서 차를 생산하고자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다.

동인도 회사는 로버트 포춘(Robert Fortune 식물학자, 1821~1880)을 중국에 보내 몰래 차나무를 인도로 가져오게 하고 동시에 차나무 재배법을 알아오게 했다.

차나무를 옮겨 심으면 차나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포춘의 차나무 수송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운반 상자에 흙을 담고 그 안에 차 씨를 넣어 인도로 운반해 성공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드디어 인도 아삼지역에서 차를 생산해 자국의 차 수요를 충당했다. 그 후 영국은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로 점차 재배지를 확장해 갔다. 한편 18세기 초 독일의 마이센(Meissen)에서 자기(磁器) 생산에 성공하자 그 후 약 반세기만에 유럽 각국에서도 자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174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도자기에 전사기법(transfer-printing)으로 문양을 넣는 실험이 행해졌는데 1750년대 영국에서 발전·완성됐다. 손으로 도자기 위에 일일이 그려 넣던 것에서 전사기법으로 인쇄하듯 문양을 찍어 넣음으로써 도자기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1775년경 웨지우드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다기세트는 크림 웨어에 전사기법으로 문양을 넣은 것이다. 영국인 웨지우드(Josiah Wedgwood, 1730~1795)는 1759년 그의 이름을 딴 도자기회사를 차리고 '크림 웨어(cream ware)'를 만들어 조지 3세의 왕비인 샤로트(Duchess Charlotte of Mecklenburg-Strelitz, 1744~1818)에게 바쳤다. 왕비는 매우 마음에 들어 해서 '퀸즈 웨어(Queen's ware)'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허락했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차의 대중화가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홍차가 영국민의 음료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중국은 유럽으로의 차와 도자기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종국에는 청나라가 유럽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7 청운사 연밭



연밭엔 아직 꽃이 없었다. 연잎들만 바람에 넘어지고 있었다. 굵은 빗소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연잎을 따라 다녔고 연밭은 파도치는 바다 같았다.

몇 해 전, 백련을 보러 김제 청운사에 갔었다. 꽃은 아직 일러서 작은 연못에 몇 송이가 전부였다.

처마 밑에 앉아 스님이 타주신 차 한 잔을 들고 해가 나기만 기다렸다. 빗소리에 졸았던지 쪼그리고 앉아 꿈을 꾸었다. 연꽃이 다 필 때까지 기다린다고 연밭 옆에다 집을 하나 짓다가 깨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스님이 백련으로 만든 된장이라며 하나 주셔서 차에 싣고 절을 나섰다. 멀리 연밭의 연잎들이 바람에 넘어지고 있었다. 굵은 빗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들려왔다. 연밭 옆에 집 하나 지어놓고 왔다.

옛 판화의 세계

칙명으로 도교의 위경을 불태우다 (勅燒道經)

원나라 때 도공공사 탈인 소연적이 상주해 불교를 비난하고 부처님 말씀을 표절한 도교의 위경들을 고발하자, 황제가 명해 <도덕경> 2권만 제외하고는 위경들을 불태우게 하는 장면이 삽화로 새겨져 있다.

소연적이 상주하자 이에 황제는 중서성에 명해 우승상 문겸, 비서감 우직정일, 천사 장종연과 여러 도류들이 진실과 거짓을 고증하고 아울러 문구를 번열하게 됐다.

도경은 그 권질이 수천 질에 달했지만 그 근본과 끝은 오직 <도덕경> 두 편만이 노자가 저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한나라 때의 장도릉과 후위시대에 구겸지, 당나라 때 오균·두광정, 송나라 때 왕흠약 등의 무리들이 찬조 연설한 것이었다. 이들은 근거가 없는 말들로서 불교를 비난하고 허망하다고 힐뜯으며 스스로를 높였다. 상감은 그들의 상주가 옳다고 해 조서로 유시를 내려 천하의 도가의 모든 경은 <도덕경> 두 편만을 남겨 두고 그 나머지 문자와 판본, 화도는 모두 불태우고 이를 숨기는 사람은 벌하게 했다.

도가에 몸담은 무리들은 노자의 법을 따라야 하며 만약 불교를 기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보통 민간인이 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 말씀을 흉내 내거나 비난하는 도가의 위경들을 다 태워버릴 뿐 아니라 도사들 중에서 노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만을 남기고 민간인이나 승려가 되게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금에도 불교라고 지칭하는 수많은 위경과 잘못된 해석으로 원래의 부처님 말씀은 위경이요,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무리들이 만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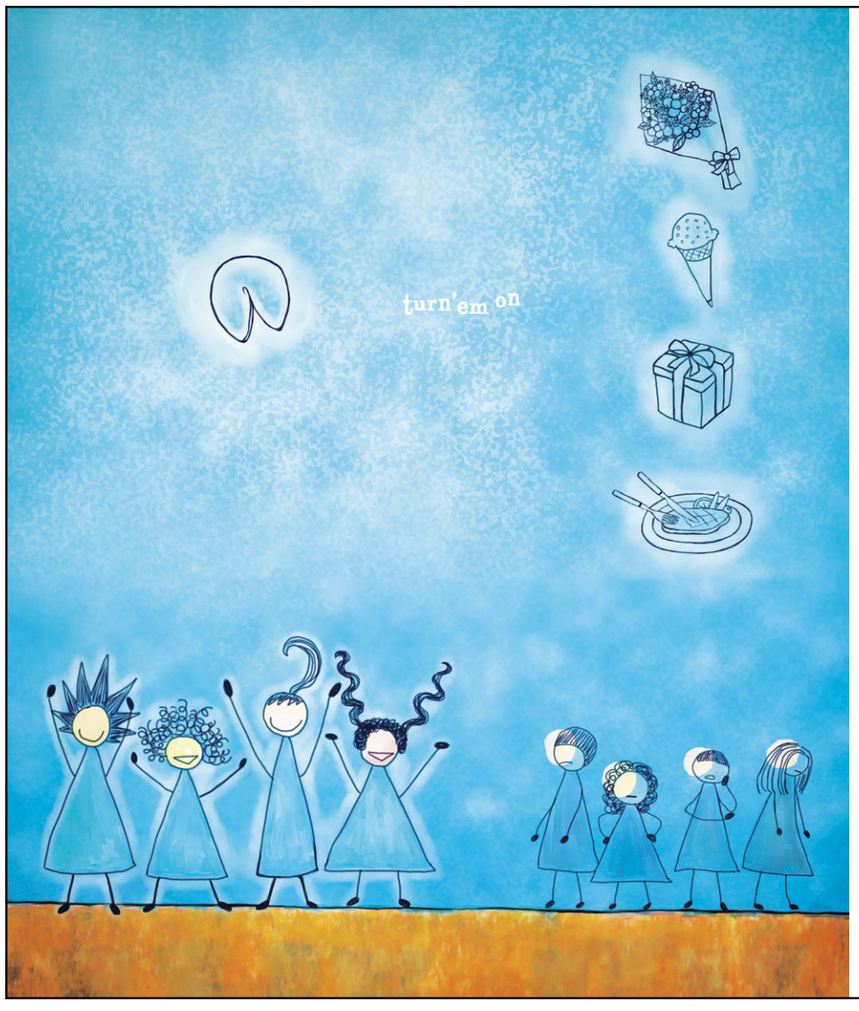
지난날 같이 위경을 다 찾아서 불태우거나 잘못된 불교를 믿는 자들을 퇴출시킬 수가 있다면 좋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자하는 서릿발 같은 정신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교를 내세우는 위경들과 위경을 따르는 무리들을 도태시켜야 할 때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칙소도경(勅燒道經).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망상은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자 거름!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문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행동도 거칠고 말도 험해서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업무적으로 부딪치다 보니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답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저놈!' 하고 엉크러쥐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저놈!' 하고 엉크러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쪽에서 나쁜 말을 해 왔더라도 '아이, 내가 있는 탓이지. 소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있을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볐지.' 그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모든 게 내 탓으로 돌려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벌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의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쪽에서도,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괜히 자네보고 이렇게 나쁜 언행을 했는데 참 미안해."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더 절친해진답니다. 또 어느 집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부모한테 오라 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기에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 당신 주인공의 스위치를 눌러도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거고 그 아들의 주인공에다 맡겨 놔도 당신까지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 이놈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버지는 벌어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앨 쓰고 있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 후로는 "얘, 이렇게 늦게 들어왔으니 몸인들 지탱하겠니? 밥은 먹었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 주고 웃으면서 과일도 깎아 주고 밥도 차려 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하고,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머니,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계시지 마세요. 인제 내일부터 일찍 들어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모습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착해졌답니다.



그림 · 최주현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맡겨 놓고 '아, 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지고 가겠지. 바로 그 길밖엔 없으니까.' 하고선 생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올바로 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해 보고 실험을 해 봐야 체험이 되지, 내 말만 듣고 무효로 돌린다면 그건 또 무효죠. 그러니 내가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사랑하고 가르치라 이거죠. 그리고 당겨 주고 실천을 같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생각에 달린 거니까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공부 재료로 삼아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망상을 끊어야 하는지요

문 스님, 자주 망상을 하게 돼서 괴롭긴 하지만 또 그 망상 속에서 공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그 손가락 하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건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고요?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갖다가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 한 번도 백지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가 쓰인 저 종이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 이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는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요? 육조 스님이 홍인 선사한테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를 말한 겁니다. 저 불 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육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진 육식, 이것을 죄다 한데 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 저 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이니까. 결국은 팔만대장경도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나입니다. 저 '불(佛)' 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망상 올라오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그 망상이 올라온 그 자리에 다시 그걸 돌려놓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 이 마음 하나를 잘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면으로 계속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두리봉산하 행 운 사
회주 법공 덕룡
주지 이룡 행천
총무 지현
신 도 일 동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전화 010-9189-3346 / 011-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백암산 오 도 암
법사 정각심
신 도 일 동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430-1
전화 054)833-0668
오도암포교당 호심사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전화 053)984-034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어떤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근본자리에 맡기세요

☞25면에서 계속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문 스님, 어떡하면 좋을지요? 삶에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바쁜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몸도 고달픈데 언제서부턴가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고 하나 있는 자식은 사고뭉치랍니다. 전자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이럴 때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빌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답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다닐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살라고 해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하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 짜증도 날 것이요, 화도 날 것이요, 이럭하고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돼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런다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 그 육체가 움죽거릴 테니깐요. 그러니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짓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다 입력을 되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앨 쓰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 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걸리고 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가발전소요. 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천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 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외려 그렇게 해서 분기가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서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전부 끼리끼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같은 것 중에서도 굵은 것, 중, 하 이렇게 골라 놨으면 놨지, 절대로 같이 섞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차원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모자식지간에 살면서도 아,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으니 어디가 병이 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를 위해서 해 준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도 요렇게 들여다보고는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아, 요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약아서.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본받는 게,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외려 더 빗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것은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에 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한 철 탤런트가 소임을 맡아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듯이 우리 인생 한 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들도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돈을 만들어서 쓰던 장난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한 철 동안에 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는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권 말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대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요. 타의에서 형상을 구하고 이름을 구한다면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으니라. 그리고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유

문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지체부자유자나 정신박약 등의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을 지어서 그런 건지요?

답 자기가 한 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도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자기가 받고 가죠. 남의 따귀를 때렸으면 따귀가 오고요. 그런 거죠. 남을 기껏 두들겨패 놓고 왔다면 그쪽에서도 앙심을 먹고 또 두들겨패러 여럿을 끌고 또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린애가 둘이 놀다가 한 애가 불집게로다가 그냥 다른 애 정수릴 쳤는데 찔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후로다가 논란이 됐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불집게로다가 그렇게 찔려서 죽었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주 드는 예지만,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데 그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옛날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통에다가 오줌을 받아 가지고는 깻벌레 씩씨거리는 거를 집게로다가 집어서 그냥 연방 넣어서 죽였습니다.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고만 인간으로 화한 겁니다. 그동안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그 집의 어린애로 화한 겁니다. 형제가 된 거죠. 그 형제가 인제 글방에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난데없이 오시더니, 그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오늘 저녁이면 원수를 갚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더랍니다. 겻불을 두 군데다가 피워 놓고 쵤 망으로다 이렇게 쳐 놓고 공석을 덮어 놓고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단단히 덮고선 아무리 부르더라도,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인기척을 하지 말고 인기척이 다 끊어진 뒤에도 한 시간 후에 나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식으로. 그런데 아, 얼마 있으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더니 아, 나중에는 그냥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넘어 가면 우린 원수를 갚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냥 팔팔 뛰고 울면서 괴성을 지르며 찾더라는 겁니다. "이 연놈들에 대한 원한이 수십 년 동안 그냥 응고가 돼서 내가 이 시간을 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 연놈들을 어떻게, 어떻게 씹어 삼켜야만 원수들을 다 갚느냐?" 하더랍니다. 아, 그럭하고서는 너무나 징그러워서 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가 그냥 싹 붙어서 전부 꿈틀거리고 한쪽에는 거미가 붙어서 그 안으로 그냥 잔뜩 들었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그냥 꿈틀거리고. 그 겻불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스님께서 그 노인네들을 건져 주신 거지요. 그러고서 그 스님은 그 깻벌레와 거미들을 정식으로 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벙어리로 태어난다든가 불구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도 죽겠지만 보는 사람도 정말 그 못지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모두가 이 세상천지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앞에 닥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흑인이 백인 낳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아주 쵤두쵤미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거저가 없고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참 쵤두쵤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고 선덕을 쌓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공부를 한다면 아주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6·2는 두번째 걸음의 시작

짧지만 짧지 않은 동안의 접전을 끝내고 6·2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북풍과 노풍 그리고 다시 각각에 대한 역풍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맞물려서 숨 가쁘게 달려온 며칠이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역시 민심(民心)은 무서운 것이라고 자평들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 경험을 돌아봤을 때, 그것도 며칠이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먼저 앞선다. 평가에 대한 겸허함, 심판에 대한 자숙, 민심을 몰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그저 며칠만 반복되는 헛된 말이 아니었던가.

선거를 지켜보면서, 밤새워 개표방송을 보면서, 여당의 참패니 야당의 신승이니 하는 말들이 그저 하는 넋두리로 들리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도 내일이면, 여당도 야당도 책임과 성과를 들먹이면서 권력게임에 몰두할 것임을 번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결과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신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에도 그렇지만 역대 지방선거는 늘 정권의 중간 즈음에 치러졌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 한나라당이었기에 승리했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였던 여당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표출되는 장이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애초 기대했던 눈높이에 맞추어주지 못하는 정권운영자들에 대한 비판, 우리 눈높이에 좀 제대로 맞춰보라는 질책과 재촉, 나아지지 않았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 그리고 낙담의 표출인 것이다. 한마디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들 해보라는 채찍질이다.

그 채찍질이 채찍질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언제나 선거결과가 나온 당일과 그 다음 날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거결과를 받아들고 채찍질 아닌 채찍질,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은 며칠 사이에 잠깐 맛보았던 기대감을 순식간에 빛바랜 희망으로 고이 접어서 다시 무너진 억장 한켠으로 구겨넣고 만다. 우리나라 유권자에게 선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파장일 뿐이었다.

적어도 유권자들은 설마 하면서도 기다린다, 내가 행한 공업(共業)의 결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번만은 좀더 많이 개선하라는 의지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그 의지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요구한다.

바꿔주세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읽어주세요, 우리 희망이 무엇인지.

혹여 이번 선거결과 역시 책임과 성과를 내세워 권력게임의 난장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당신의 권력쟁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질 또다른 절망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삶에 희망과 우리 삶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을. 다음 선거까지 제발 겸허한 당신을, 제발 노력하는 당신을 기대한다는 것을.

또 정치판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는 우리 한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말하고 싶다. 그 정치판 우리가 지은 공업(共業)의 결과라고. 설마 '똑똑한' 우리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일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똑똑한' 유권자의 몫은 아닐 것이다. 결과를 만들었으니, 그 결과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첫걸음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 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의 빛바랜 희망은 정치꾼의 안주머니에서 뒹굴다 다음 선거 때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송묵 스님
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일체중생 예경이 기도

누가 복을 주고 벌을 주는가?

이 말은 10여 년 전에 읽은 법정 큰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인데, 생각나서 적어본다.

50쯤 되신 아주머니는 스물네 살 때까지 절에 다니다가 시집간 뒤에 발을 끊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봄 딸이 다니는 강남의 어느 절에 가서 여러 신도 분들이 열심히 절하는 것을 보고 같이 절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뒤 호되게 앓아눕게 되었다. 딸이 말하기를, 엄마가 그 동안 절에 안 나와서 벌을 받아 그런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불교의 어느 가르침에 있는 소리인가? 누가 벌을 주고 복을 준다는 말인가? 부처님이 벌을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불교 신자 중에 있다면 그는 불교를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부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부처는 분노하고 질투하며 복을 주었다 거두었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부처란 눈뜬 사람이다. 지혜와 자비를 몸소 실현하면서 이웃에게 그 그늘을 드리우는 너그러움이 부처다.

신앙이나 진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겪어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가르침을 큰스님께서 주셨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누가 복을 주고 벌을 주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 물음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일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큰 힘을 지닌 불보살님께서 세운 행원력(行願力)은 고통받는 중생들의 원을 다 들어주어 구제하겠다는 그 행원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다. 간절히 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신심 있는 자력기도로써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일심지성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요행수를 떨쳐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는 "내 탓이오"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다.

옛날 인도에 겸손한 왕이 있었다. 왕은 누구에게나 먼저 머리를 낮추어 인사를 하곤 했다. 신하들이 그런 왕에게 말했다.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머리입니다. 왕께서는 나라의 으뜸가는 귀하신 몸이신데 함부로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왕의 위엄을 지키셔야 하오니 앞으로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시옵소서!"

왕은 아무 말 없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며칠 후에 신하들에게 말 대가리와 고양이 대가리, 사람의 해골을 주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팔아 오너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팔러 다녔다. 다행히 말과 고양이 대가리는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 해골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기는커녕 오히려 역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는 사람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신하들은 해골을 들고 왕 앞에 나와 "왕이시여, 해골을 사기는커녕 저희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동물은 예의라는 것을 모르는데 반해 인간은 예의를 안다. 인간이라 하면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양이나 말 대가리보다 못한 게 인간이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 인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일체중생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볼 줄 알고 예경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된 나의 신심을 다 바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다. 기도를 통해 삼독심(탐, 진, 치)을 여의고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룩한 가르침이 기도다. 자신(我)을 놓아버릴 때 지혜와 복덕이 구족해지고 성불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석으로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하면서 하심(下心)하고 회향(바라밀실천)하면서 바른 믿음, 이해, 실천을 하는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예불을 모시지 않는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불이(不二)의 세상, 동체의 세상임을 잊지 말자.

사 설

문수 스님이 남긴 화두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육신은 사대로 돌아갔다. 애초에 오고 감이 없다지만, 느닷없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을 듣고는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리고는 수행자가 소신공양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동시대를 사는 공업자로서 부끄러웠다.

문수 스님은 어찌해볼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수없이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신공양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썼을 것이다. 문수 스님은 세 곳에 동일한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 호소에 이명박 정권은 답이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하나.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죽비에 다름 아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 설치된 분향소에 애도 행렬이 줄을 이었다. 조계종총무원과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불교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에서는 애도문을 발표해 문수 스님의 뜻을 새겼다. 4일 봉행된 다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사를 통해 "세상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갈등을 푸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 세상의 온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4대강, 부정부패, 가난과 소외'는 불자들과 시민사회가 풀어야 할 화두가 되었다.

6월은 평화 실현의 달

한반도 현대사에서 6월은 큰 일들이 많았던 달이다. 남북 상쟁의 6·25와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또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6·29 선언이 있었다. 평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깨닫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한국전쟁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 가까이 흘렀어도 남과 북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만성적인 안보 불안을 겪고 있다. 남북 갈등뿐 아니라 남남 갈등까지 겹쳐 피로를 더 하고 있다.

어떤 일에든 재정적·사회적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평화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대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설령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주저함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6·25전쟁이 웅변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6월을 '한반도 평화 실현의 달'로 정했다.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 봉행, 강연회, 음악회, 걷기대회 등을 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될 사소한 문제가 상호간의 오해와 잘못된 신호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간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진 상황에서 적절한 지적이다. 또 평화 실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연다니 기다리던 단비가 오듯 반갑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 행사가 원만 회향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기미년 3.1독립운동 민족대표와
11.3 광주학생 독립운동 학생대표 추모를 위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

오는 6월 18일 대각교단에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봉행하고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각국 최고 고승지도자들을 초빙하여 평생 한 번 받기가 어려운 금강보살계를 전계함으로 모두가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무상의 보리도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증명대법주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대법사



조선불교 중흥율 8조
태화당 석가산대율사



봉행위원장
개당화상
석능인대화상



▲국제전수 금강 보살계 대법회



▲세계 고승 최고 지도자 아사리존증사단

*천안함침몰사건 희생자들의 추모의식과
법회를 위한 축하공연이 정오 12시부터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이수자
지우 대종사

일시 :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오후1시
장소 : 대구시 산격동 호텔 인터불고 국제연회장
후원 :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최고지도자협의회
협찬 : 불교TV방송, 현대불교신문, (주)우성에프아이,
(주)HAMELS CLUB, (재)S.A.V.E, 한복전문십장생,
승복전문향원섬유, 이로운여행사
주최 : (사)봉암변진설 기념 사업회
주관 :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 봉행위원회
접수처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대승사
053)325-5288 fax : 053)325-4848

(주)코스모스여행사

대만공승법회에 초대합니다
한국대표단 스님 신도 80명
여행기간 : 8월 26일 부터 30일까지
☎ 010-3823-7510 김태희